

코로나19 최일선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강화

검사대상자에 대형선풍기·얼음물 등 제공... 의료진 인력 충원·교대근무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임시선별검사소 대기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하절기 장마·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하절기 운영수칙'을 강화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검사대상자를 위해 그늘막 설치와 대형선풍기, 양산, 얼음물 등을 제공하고 온열환자 후송체계를 마련했다. 의료진 인력 충원과 교대근무도 지원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 총 162개를 운영 중으로 이중 수도권이 129개로, 지난 7일 수도권 대책 발표 이후 신규 32개를 추가로 설치완료했다.

중대본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평일 밤 9시, 주말은 저녁 6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검사 접근성을 높였다. 다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긴급히 설치돼 상대적으로 폭염 대비가 열악한 검사소에 대해 개선과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가급적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에 검사소를 설치하고 상시 그늘이 생기지 않는 장소는 그늘막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폭염경보 등 발령 시 하루 중 기온이 최고조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축소·조정하는 등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검사대기자의 경우 폭염 노출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늘막 설치와 대형선풍기(냉풍기), 양산, 얼음물 등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배치하고,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온열환자 후송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대기인원 현황안내 앱 등을 활용해 대기인원이 적은 곳으로 방문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누리집(http://ncov.mohw.go.kr)을 통해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현황(위치, 운영시간 등)을 확인해 필요시 대상자를 인근 선별진료소로 분산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진의 개인보호구는 점수·

진료 및 검체 채취 때 전신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등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이와 함께 현장인력의 휴식을 위한 휴식공간(냉방공간)을 만들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체온 유지가 가능하도록 식수와 냉방기를 비치했다.

특히 현장인력 충원, 교대 근무 지원,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 의료·행정 인력 등을 지원해 폭염 속에서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을 먼저 챙길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방역 최일선에서 신속한 검사,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 등 현장 근무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중수부, 행안부, 기재부) 등과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 이행, 마스크 착용,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방역당국의 조치사항과 방역수칙을 충실히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독도가우리나라영토인 이유와 지켜야 할 이유

독도가 우리 땅임을 대외에 알렸던 결정적 인물이 바로 노비 출신 안용복이다. 17세기 80여 년간 일본은 독도에서 불법어로 활동을 한다. 안용복은 36세로 키 140cm, 일본말을 할 수 있는 왜관을 출입하던 상인이었다.

안용복은 울릉도, 독도에서 나오는 풍부한 자원을 일본 어부들이 포획하는 것을 알고, 그는 1693년 4월 27일 일본으로 건너가 돗토리현 오타니 가문에 도착하여 사무라이 정권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외교문서를 받아낸다. 돗토리현 통치자는 안용복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함부로 침범하면, 대마도의 영주가 모두 국서로 만들어 역관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인이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부터 우리의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수비대에 나섰다. 6. 25 전쟁 참전했던 흥순철 대장이 이끄는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4년 8월, 일본 순시선과 어업실습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침투했을 때마다 수차례 격퇴했다. 동도 바위에 "한국령"을 새긴 영토비를 설립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독도를 군인이 아닌 경찰이 지배하는 실효적 지배 증거를 만드는 토대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밝힐 수 있는 이유로 첫째, 역사적 증거 둘째, 국제법 증거 셋째, 지리적 증거 넷째, 실효적 지배 증거 등을 근거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지배를 받았는가? 에 대한 증거로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가 울릉도를 점령할 당시 독도는 이미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우리나라 지도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역사서와 문서로써 고려중기 감부식 삼국사기, 조선 시대 세종실록지리지, 조선 시대 전기 동국여지승람, 조선 후기 속중 때 안용복의 노력으로 일본은 1696년 돗토리현 행정명령서에서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일본의 지도에는 독도가 지도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칙령 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이런 역사적 증거 등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밝혀주고 있다.

국제법으로 영토소속이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1905년 러. 일 전쟁 도중에 우리나라 땅 중 가장 먼저 독도를 일본 땅으로 귀속시켰는데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연합군이 SCAPIN 677호(1946. 1. 29)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고 한국에 반환해 국제법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지리적으로 본토에서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는가? 에 대해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고, 오키섬에서 157km 떨어져 있어 울릉도가 본토에서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영토로 보는 것에 설득력이 있다.

실효적 지배로서 경찰이 치안을 지키고 있는데 경찰이 수비하고 있는 것을 보아 우리 행정구역이라는 것을 뜻한다. 1953년 일본 순시선이 독도를 상륙하자 흥순철 대장과 독도 주민들이 독도수비대를 만들어 일본 순시선을 몰아내기도 했다.

독도를 우리가 지켜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실익에 있다. 독도는 관광과 해양자원으로 12조 5천억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 또 미래 천연자원인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무한정으로 묻혀 있어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독도를 수호할 중요한 명분이 된다.

2015년부터 일본의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육중 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이런 교과서를 배운 일본 학생들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위에서 제시한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일본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교수/김원호

국방부, 청해부대 34진 안전 후송 전개... 공중급유수송기 급파



국방부가 청해부대 34진 전원의 안전 후송을 위해 18일 오후 4시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를 해당 지역으로 급파했다.

이번 작전은 청해부대 활동지역 인근의 환경적 특징을 고려해 '위안·생명'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오아시스 작전'이라 명명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하게 복귀시키겠다는 의지와 빠른 치유 및 안식을 위한 염원을 담고 작전을 전개한다.

한편 청해부대 34진은 101명에 대한 PCR 검사결과 18일 현재 총 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도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 현재 임무수행 중인 301명의 청해부대 전원을 복귀 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합정 교체병력 148명과 방역 및 의료인력 13명과 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약 200명 규모의 특수임무단을 현지로 투입해 청해부대원을 군 수송기로 안전하게 국내로 후송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 수송기에는 이송 중 긴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기내 산소통 등 충분한 의료 장비와 물자를 구비했으며, 의료진이 동행해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15명을 포함한 환자들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 내 격벽을 설치하고 승무원 전원은 방호복을 착용하는 등 기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강구했으며, 특수임무단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문무대왕함을 소독·인수하고 합정을 안전하게 운항해 국내로 이송한다.

아울러 문무대왕함에 교체투입되는 해군 장병들은 대부분 파병 경험에 갖춘 인원들로서 전원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방역 및 의료전문가가 포함돼 합정 인주시 철저한 방역 조치를 강구한다.

특히 이번 수송기 긴급 투입은 유관기관과 현지 공관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 서육 국방부 장관은 현지 국가 국방장관과의 긴급 공조 통화를 통해 현지 임무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해외에서 국제평화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장병들의 긴급 복귀를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부족한 기내용 산소통을 지원하는 등 힘을 보탰다.

서육 국방부 장관은 "이역만리에서 우리 국민 보호와 국제해양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청해부대원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가 최우선 임무"라고 강조하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귀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방부는 방역 당국과 협조하여 청해부대원의 국내 도착에 대비해 전담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군내 격리시설을 확보 중에 있으며 확진자 현황이 나오는 대로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전남교육청, 장애산악인 김홍빈 대장 '무사귀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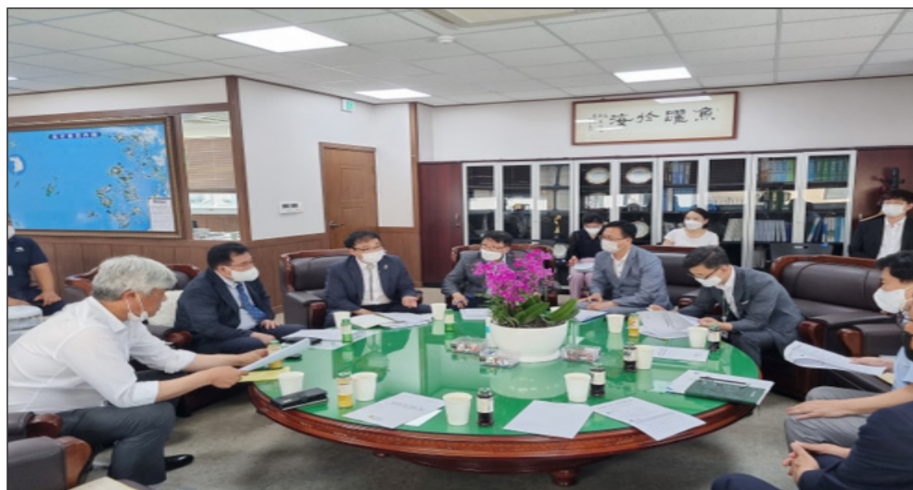
희망전남교육명예대사 김홍빈 대장의 무사귀환을 전남교육 가족과 함께 지원합니다.



희망전남교육명예대사 김홍빈 대장의 무사귀환을 전남교육 가족과 함께 지원합니다.

조옥현 전남도의원,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산업발전 위해 현장목소리 청취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16일 신안군수협 본점에서 목포시·신안군·영광군수협 조합장들과의 해상풍력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남도 해상풍력산업과장, 수산자원과장 등도 함께 했다.



조옥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시대로 나아가야 함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산업관계자 특히 어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산업이 되도록 현장을 비롯해 어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어업인관계자 등 20여명과 「전라남도 해상풍력 활성화 지원 조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의견은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에 어업인과 수산업관계자 등 명시', '수산업과의 상생·공존 방안 마련', '이익공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조례안에 수산업과 공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민관협의회 구성 시 어업인 대표, 수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를 참여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의 지속적 모니터링 등 다양한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이번에 주신 의견들도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조례라는 특성상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에 필요한 규칙 등에 세세하게 담길 수 있도록 챙겨 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바다는 어민들에게 삶의 터전이고, 수협은 어민들이 기댈 든든한 언덕이기에 어민들과 수협의 상생방안 마련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옥현 의원은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김원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간담회마다 설명의 시간을 갖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복잡하고 다단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영만기자

이은주 의원,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1인 평균 26.5건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17개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 총 3천681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수사관 1명당 평균 26.5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양천 아동학대사건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 2월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경찰서에서 조동조치를 실시하면서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서 전담하는 식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각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운영 현황(2.8~6.30)'에 따르면 17개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인력은 총 139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경찰청 18명, 인천경찰청 10명, 경남경찰청 9명, 부산·울산·경북경찰청 각 8명, 대구·경북경찰청 각 7명, 대전·강원·충남·전북경찰청 각 6명, 광주·충북·전남·제주경찰청이 각 5명씩 구성돼 있다.

수사인력별 평균 사건 담당 건수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관 1명이 평균 47.6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어서 서울(35.5건), 경기북부(30.6건), 충남(28.2건), 부산(27.5건), 인천(24.2건), 경남(22.9건), 대구(22.4건), 제주(18.8건), 전남(18.6건), 전북(18.5건), 울산(17.8건), 대전(16.7건), 경북(15.6건), 광주(14.6건), 충북(14건), 강원(9.8건) 순으로 수사관 1인당 평균 담당 사건 건수가 많았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신고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수사가 지체되고 사건이 쌓이게 되는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

제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발생할 경우 두달 치 CCTV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업무부담이 크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한정된 인력에 업무부담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 6월1일부터 피해아동이 10세 미만인 경우만 시·도경찰청에서 전담수사하는 것으로 운영대를 조정했다.

경찰청은 "10~12세의 경우 정상진술이 가능해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지만, 각 지역별 신고 건수에 비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 병목현상과 수사인력의 업무과중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전담 수사인력을 충원해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충남도의회 의정활동 한눈에

충남도의회는 의원들의 공식 의정활동 모습을 담은 온라인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사진전은 의원들이 의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알리고, 이를 통해 의회에 대한 도민 관심도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건의·결의안 채택, 상임위원회 활동 등의 모습이 매년 1회 도의회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의정활동을 담은 사진전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다.

고정화기자

장수군의회, 국도 19호선 장수-장계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재개 촉구



장수군의회는 7월 19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도 19호선 장수-장계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희식 의원은 "장수군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장수-장계 구간의 우회도로 개설 및 시설 개량공사를 관리주체인 익산시 방국도관리청에서 2021년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지만, 2021년 11월부터 시행사와 감리단의 갈등, 익산시방국도관리청의 관리 미비 등으로 중단된 상태로 공사 현장이 방치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공사 중지로 집중호우 발

생 시 농경지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배가될 수 있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기대했던 장수군민의 바람이 언제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익산시방국도관리청에 자연재해 시 피해 위험이 있는 공사 구간의 신속한 보완 조치뿐만 아니라, 장수-장계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문)에 심사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보다 대비 4.33%증액된 444,322백만원(일반 401,050, 특별 43,272)으로 심사·의결했다.

김승일기자

영주시의회,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의정활동

영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지난 19일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효율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위원들은 장수면 남부작물 실증시험장 건립 현장, 영주동 거점주차장, 랜드마크 관문조형물 조성사업 현장 등 총 3곳의 사업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 담당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내용과 진행현황,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및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봤다. 현재 건립 중인 장수면 남부작물 실증시험장에서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신소득 작물의 개발과 무병묘의 생산 및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주동 거점주차장을 방문해 협소한 경사로 너비 확장 및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랜드마크 관문조형물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영주시를 각인시킬 만한 콘텐츠 개발과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현안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집행부에서도 사업 추진 시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다시보는 의정활동, 사진으로 만나다'

나주시 공고 제2021-978호

신광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재해(개선)복구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의 공람·공람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나주시장

1. 공고개요

- 공고명: 신광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재해(개선) 복구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과업범위 및 규모

하천명	위치	연장
신광천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일원	1.78km

2. 주민공람 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2021년 7월 16일 ~ 8월 12일(20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나주시청 홈페이지(www.naj.go.kr), 나주시청 안전재난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bss.go.kr)
- 공람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람장소에 비치

3.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계획명	장소	일시
신광천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및 재해(개선) 복구사업	다시면사무소	2021년 7월 29일 14:00

- 내용: 신광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재해(개선) 복구사업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의견 청취

4.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장소 및 방법: 공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서면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안전재난과(061-339-72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초안요약문 각 1부.
- 2.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이용호 의원, '학교보건실 역할정립법' 대표발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학교 보건실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0일, 학교 보건실에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실 역할정립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 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포괄적인 학교보건프로그램(CSHP)으로서 8대 서비스(①보건 의료서비스, ②보건교육, ③건강한 학교 환경, ④교직원 건강증진, ⑤가정과 지역공동체 연계, ⑥영양서비스, ⑦체육교육, ⑧상담·심리학적·사회적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당국 역시 이를 인지·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보건실이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건실의 기능을 왜곡할 여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학교 보건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현행 학교보건법 역시 학교 교내 구성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시행 중에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창궐하고 있는데 어린 나이 때문에 백신접종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학교에서의 보건교육과 보건실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학교 보건실은 학교보건과 학생의 건강관리 등 보건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과 기구 등을 갖추는 것이 상식이다. 반면 현행 규정은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정의 명확하지 않고 실질적인 보건실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보건실에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것으로 명확해진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 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성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페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서초구, 온돌의자의 놀라운 변신! 쿨링의자 설치 '폭염 꼼짝마!'

서울 서초구의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내 버스정류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서리풀 쿨링의자'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리풀 쿨링의자'는 겨울동안 버스정류소에서 한파를 따뜻하게 막아준 '서리풀 온돌의자' 위에 열전도율이 낮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쿨링덮개를 설치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구는 쿨링덮개에 흰색과 밝은 색을 사용하여 과열현상을 방지하고, 시각적으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했다.

구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버스정류소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기존의자에 비해 5~6℃정도 온도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구는 올해 기존 시범운영한 10개 정류소에서 50개를 더해 총 60개소로 확대했다.

또 쿨링의자는 덮개만 제거하면 기존 서리풀 온돌의자로 겨울철 사

용이 가능해, 계절마다 의자를 교체할 필요가 없기에 예산 절감효과도 가지고 있다.

한편 구는 역대급 무더위에 대비해 오는 26일부터 서초1교 등 지역내 교량 하부 인공 그늘을 활용해 도심 속 휴식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주민체감형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리풀 양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차별화된 디자인의 양산을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정동희/기자

금천구,공동체치안'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분야' 으뜸파트너 최초 선정

금천구는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2021년 공동체 치안 '으뜸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동체 치안 '으뜸파트너'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반기별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개인 등 5개 분야에서 선정되며,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분야'에서는 금천구가 최초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민·경 협력 강화를 위해 센터내 구청의 통합사례관리사와 경찰서의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상주하는 전담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서울시에서 통합사례관리사와 학대예방경찰관이 모두 전담 상주하는 곳은 금천구가 유일하다.

금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정해체 위기가구에 행정과 치안서비스의 접목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8년 10월 개소했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 경찰청 등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 사례관리 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구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2019년에도 공공기관분야에서 으뜸파트너로 선정된 바 있다.

유성훈 구정장은 "민·경이 함께 위

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존 체계로는 어려웠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가정폭력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강동구, 무형문화재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발간

강동구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인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유물 정밀실측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출상 전날 밤 선소리꾼과 상여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상여소리를 부르며 노는 놀이다. 이번 보고서 발간 사업은 호상놀이 참여 인력의 고령화 및 장비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

정밀실측 대상은 ▲상상여(부부) ▲만장기 ▲의류복장 ▲장식물 등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에 사용되는 제반 장비·시설로, 조사보고서에는 각종 장비

의 사진 촬영과 정밀현황 실측 및 도면, 상여소리 녹음을 담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 협조를 바탕으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유래, 진행과정 등 전문학적인 내용도 포함해 제작했다.

조사보고서는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보존회, 사료관, 기록원 등 주요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사보고서 발간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기반 자료를 조성하여 자연재난 및 화재 등 유사시 복원 자료뿐만 아니라, 수리 시 재설계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예술

적 가치를 알리고 후계자 양성 등 체계적인 전승을 위해서는 전수관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는 무형문화재의 계승과 전승 장려문화 교육·체험 공간 마련 등을 위해 서울시와 협조해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도 검토 중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조사보고서는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보존·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며, "구는 앞으로도 귀중한 향토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서울 중구, 서울시 최초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중구는 서울시 최초로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현실적인 보장책으로 월 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16만5천원으로 이중 교통비가 2만5천원을 차지한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교통비 월 평균 비용은 2만7천원으로 경증 장애인에 비해 추가 지출이 크다.

중구는 타 지역에 비해 등록 장애인 수가 적으나 교통약자인 지적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이 전체 등록 장애인 수의 57%를 차지한다. 이에 구는 장애인 정책 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교통약자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조례 제정 등 세심한 준비과정을 거쳐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중구에 등록된 '심한 장애'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이다. 단, 대상자가 장기입원이거나 시설입소자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20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가능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고 거동불편 또는 심신 박약 등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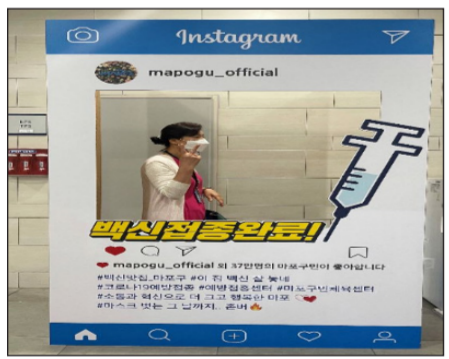
구는 대상 여부를 확인 후 8월 20일 최초 지급하며 대상자는 매달 20일에 3만원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7월 중 신청자는 최초 지급 시 7월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동정부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개소해 장애인 가족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돌봄 서비스와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성인 발달장애인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지원하며 지난 4월부터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책을 마련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체감하는 고통과 불편은 매우 클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 상황에 더욱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게을리 하지 않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마포구, 백신맛고 "찰각" 시원한 커피쿠폰 받아 가세요



마포구는 지역 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2개소(마포구민체육센터, 마포아트센터)에 백신 접종 인증 포토존을 설치하고, 개인 SNS에 인증을 한 구민에게 커피쿠폰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지속되는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구민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마포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은 지난 7월 19일부터 상품 소진시까지로, 선착순 150명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품은 커피쿠폰이다.

참여방법은 마포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 후, 센터 내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필수 해시태그(#마포구 #백신맛집마포구)와 함께 본인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 후, 마포구청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을 달면된다.

유동근 마포구청장은 "이번 이벤트 이외에도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상으로 가기 위한 최선의 지름길은 백신접종이니, 백신접종과 인증 이벤트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조례로 미래세대 위한 책임있는 실천 약속해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를 비전으로 상생과 혁신, 소통과 안전의 가치를 추구하는 서울시 성동구는 이달 15일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 공포하며 본격적인 지속가능발전 도시로의 시작을 알렸다.

조례는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이달 공포를 통해 환경·경제·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원칙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지표에 따라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

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도 제정, 지속가능 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의 의뢰 등 구체적인 사항도 마련되었다.

'지속가능발전1)'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에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하며 모든 구정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것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가 조화롭고 균형있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7개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5대 핵심전략2)을 기반으로 56개 세부목표와 연계된 113개 이행과제를 수립, 주관 부서별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로 연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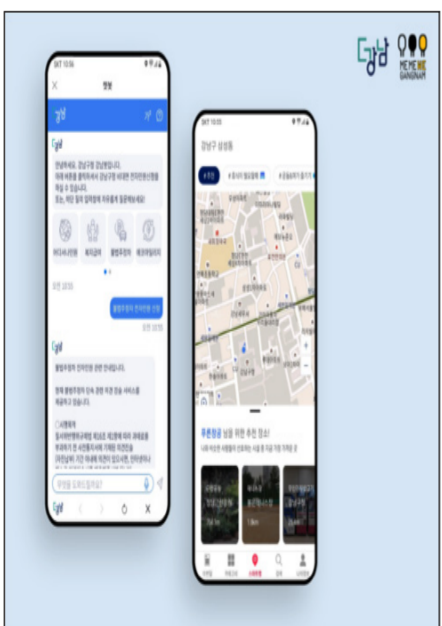
여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환류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마련된 법적 근거로 성동의 특성을 반영한 17개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실현,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구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구체화하며 실현의 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강남구, 모바일 강남구청 '더강남' 챗봇으로 복지민원까지 해결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최근 모바일 서비스 '더강남'에 인공지능 메신저 '강남봇'과 공간지도인 '스마트맵'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인 '강남봇'은 각종 증명발급에서부터 불법 주차차 신고,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같은 민원 관련 문의 사항을 24시간 답변해주는 AI 상담사다. 채팅창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자동완성 질문이 표시되고 빠르게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음성 인식 기능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휴식이 필요할 때, 지식을 쌓고 싶다면', '강남여행' 등 12개 테마별 맞춤형 공간을 안내하는 위치기반 '스마트맵'은 내 주변 공공·편의시설의 위치

와 정보를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지도에 담은 서비스다. 이용자와 같은 성별, 비슷한 연령대가 많이 찾는 선호 정보를 자동 추천한다. 지속적으로 테마를 추가해 다양한 시설 정보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2018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스마트도시' 역량 강화에 나선 강남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QR코드를 코로나19 검진에 활용해 최근의 대규모 확진자 발생 때 하루 1만 명의 검진을 해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구는 이와 함께 '더강남'으로 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 서비스, 민원실 대기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발권시스템 등을 가동해 왔다.

정동희/기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지원자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금액 매월 3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시기 2021년 8월 20일 최초 지급

신청문의 각 동 주민센터 동정부복지팀



“어렵고 딱딱한 말 바꿔요”

남동구, 공공언어 바로쓰기 앞장



인천시 남동구가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어렵고 딱딱한 공공언어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말로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부터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장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고시·공고문, 행정명령, 홍보물, 법정 민원 서식, 관광안내문, 각종 안내표지판 등 평소 권위적이고 차별적으로 느껴졌던 용어나 외래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쉬운 말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언어가 모두 포함된다.

남동구 홈페이지 내 신설된 '공공언어 개선제보'란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남동구청 대변인실,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제보할 수 있다.

제보된 내용은 남동구의 1차 검토 후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최대 10일 동안 전문가 감수를 거쳐 최종 개선 언어가 확정된다.

특히 인하대 국어문화원은 한글

교육 및 언어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교육기관으로, 지난해 문체부 평가에서 최우수 국어문화원에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어 이번 공공언어 바로쓰기의 신뢰와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

구는 감수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리는 한편 각 부서에 전달해 개선 권고하고, 중앙부처 소관 업무에 속할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 개선 건의할 방침이다.

더불어 인천주권찾기캠페인 등 여러 공익사업에 앞장서 온 인천 YMCA와 협력해 공공언어 바로쓰기를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대외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한 차례 개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사용 실태를 점검해 바르고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할 생각”이라며 “평소 어렵고 불편했던 공공언어를 직접 바꿀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주저하지 말고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호응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이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4월 5일 부흥초를 시작으로 총 8개 학교 43개 학급에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9월 8일 부원초등학교 5개 학급 교육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 예방교육은 학급별로 2교시 동안 진행한다. 강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생활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살펴보고, 사용조절 방안을 찾도록 하는

참여방식의 프로그램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량을 줄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 보겠다',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겠다', '부모님이 인터넷을 왜 조금만 하라고 했는지 알 수 있겠다' 등의 소감과 다짐을 전했다.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급별 교육 이외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1:1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 신청은 전화로 가능하다.

전순희/기자



인천 중구-국립인천해사고, 업무협약(MOU)체결

해양전문인력 양성·지역사회 해양의식 고취...해양교육 클러스터 구축 공동 추진

인천 중구는 지난 16일 제1청 구청장실에서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와 실습선「한나래호」의 효율적 운영과 해양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해양의식 고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실시로 인천해사고등학교가 중구청을 방문해 협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본 협약은 중구청 외에도 6개의 유관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사)인천항발전협의회, 극지연구소)이 참여했다.

인천해사고등학교는 인천중구 관내에 위치한 국립고등학교로 현재 360여 명의 학생과 155명의 교직원이 우수한 해기인력양성을 목표로 해양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480억을 투자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건조한 5,200톤급 상선 실습선



1척이 인천항으로 유인되어 8월부터 인천지역 거점의 우수해기사 양성·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실습선「한나래호」를 이용해 중구 주민들의 해양 진로교육과 승선체험 활동 등 다양한 해양교육문화 활동이 가능해

인천 중구가 해양교육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실습선「한나래호」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인천 중구를 비롯한 인천항 관련 유관

기관들은 인천항 상시 정박을 위한 전용 선석 제공에 관한 업무, '한나래호'의 실습교육과 선박운항 최적화를 위한 육상 전원, 광케이블, 학생의 안전한 이동 동선 확보 등에 관한 업무, 해양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업무, 지역사회 해양체현 진로교육 및 해양의식 고취를 위한 승선체험 활동에 관한 업무 등 총 5개 사항을 합의했다.

인천해사고등학교 김상환 교장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학생들이 실습선을 통한 각종 해양교육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부지에 심터를 조성해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인성 구정장은 “지역의 해양교육 클러스터 구축의 시발점인 실습선 한나래호 정착지원을 위해 인천 중구와 인천해사고등학교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남/기자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용자 지원

동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용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용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운영 자금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하려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자를, 생활안정기금은 재난(천재지변, 화재 등)을 당하여 생계자금이나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 주민이며,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서울시 소재 사업

장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단, 용자 상환중인 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와 수탁금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실태조사와 담보조사 등을 거쳐 ▲주민소득지원금은 3천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은 2천만원 이하로 용자를 시행한다. 용자는 2년 거주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율은 연1.5%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대부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납증명서를 구비하여, 이달 30일(금)까지 동작구청 자치행정과(장

승배기로 161, 4층)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820-96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연4회 분기별로 1개월간 신청을 받아 용자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용자금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업장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선이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식/기자



구로구,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홍보

구로구가 관내 '2021년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에 나섰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중 일부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 및 경영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된 기업은 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4년간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8만3590원씩 지급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후 우선으로 신청여부 확인 필요.

지원 대상,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한 예산 지원이 인증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 기업이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인천 동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여름방학 박물관 온라인 교육 운영

인천 동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문화적 감수성의 성장을 돕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집에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온라인 교육 콘텐츠'강좌를 운영한다.

지난 3월부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동구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옛 배다리시장의 모습을 스티커로 만들어 색칠하고 지퍼파일도 꾸며 보는 '복적복적 배다리시장 이야기'과정(초등생 70명), 클레이를 활용해 다양한 달동네 집을 만들어

보는 '뚝뚝뚝 달동네 집짓기'과정(초등생 100명) 등 2개 강좌를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가정에서나마 문화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본 교육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21일부터 27일까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현유주/기자



남동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위해 통학버스 합동점검 나서



인천시 남동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일반 학원과 특수학교 등 5곳에서 운영 중인 통학버스

6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화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전자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기록일지 작성·제출 여부 ▲차차 확인 장

치 및 좌석 안전띠 결함 여부 등이 다.

특히 지난 4월 본격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창유리의 과도한 선팅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창유리 선팅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 돼야 한다.

구는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등 4건을 확인해 임시검사와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며, 단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관리자 분들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안전 규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어린이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2보] 용인시 양지면, 교동회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 무관심

공공건물을 버젓이 불법으로 증축하고 개인 사무실로 사용 공무원 뒷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교동회관(마을회관)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고 개인사무실로 운영, 일부는 수년간 월 임대료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61-1외 필지에 건축된 교동회관은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로 2000년 대지 471㎡ 연면적 286㎡ A동 1층 마을회관, 2층 노인정을 신축하고 부속건물 창고 28.09㎡를 신축한 후, 2002년에는 기존회관 건물과 맞대어 2층 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로 연면적을 확장, 기존 A동 2층 258㎡, 증축 2층 소매점, 사무소 210.08㎡, 기존 B동 창고 28.09㎡ 증축하여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2년 확장 증축된 후 2005년 회관 평슬라브 건물 옥상에 약 70㎡ 크기의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불법 건축물을 가로 6M 세로 10M의 샌드위치 판넬구조로 증축했다.

그 후 00 단체 사무실로 사용했고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가 최근 2년 전부터는 일부 인사의 개인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교동회관 불법건축물 일부는 임대계약을 하고 월 임대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



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은 “공공건물을 버젓이 불법으로 증축하고 개인 사무실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월 임대료까지 받았느냐”며 불멘소리를 했다.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지역인 처인구청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전 이에 대한 의견을 지난 12일까지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지난 6월에 통보했다.

교동회관의 불법건축물 위반내용은 ▲(1층) 주차장법 위반, 불법증

축-조립식판넬(근린생활시설 25㎡) ▲(3층) 불법증축-경량철골구조(근린생활시설 120㎡),불법증축-경량철골구조(근린생활시설 100㎡)로 건축법 「제79조」에 근거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19일 처인구청 관계자와 본지와 통화에서 “교동회관측으로부터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된 상태이다” 라고 말했다.

처인구청에서 제시한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는 단순히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대한 위반사항을 건축주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하겠다고 통보하면 2005년부터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관리자가 위반건축물을 철거한다면 과태료 처분없이 없던것처럼 되는 사안인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 및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관청은 좀더 세밀하게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을 세워 법에서 명시한 대로 년1회 정도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공적·사적 건축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익한 공공의 장소가 되어야 할 마을회관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관할구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관계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정부/기자

전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방역점검추진

전북도는 경기·강원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점검을 추진한다.

19일 전북도는 야생멧돼지 접근성이 높은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동부산악권 농가를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5주간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14개 시군 농가의 축산차량출입통제유형 및 8대 방역시설 구축 현황 조사와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작년 9월 16일 경기 파주에서 최초 발생한 후 경기도, 인천, 강원도에서 현재까지 농가 17건, 야생멧돼지 1,471건이 발생했다. 특히 7월 들어서 양성개체가 추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20개반 40명(도 4, 동물위생시험소 8, 시군 28)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농장 입구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퇴사조류차단망, 돈사 환풍기 방출망 등 설치 여부, ▲울타리 설치 여부, ▲돈사 진입 전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이행 여부, ▲남은 음식물 돼지농가 이동제한 명령 이행 여부, ▲돼지방목 금지 명령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14개 시군과 함께 농가별 차량출입통제유형 및 8대 방역시설 구



축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홍보한다.

그간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발생·위험지역 전국 35개 시군 돼지의 생축·정역·분뇨·사료의 도내 반출입을 금지했다.

또한 농장 사육돼지, 축산시설, 포획멧돼지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왔다. 아직까지 바이러스 검출 사례는 없었다.

박대욱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출입차량·축사내외의 소독 등 철저한 방역 활동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송일/기자

양주시, 교내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양주시는 지난 19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경찰서와 불법촬영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공중화장실로 국한되었던 불법촬영 점검 범위를 교내 화장실까지 확대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열원 양주시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해 최병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이동길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점검 체계 구축을 통한 성범죄 예방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학교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 연

2회 이상 총 55개교의 초·중·고등학교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합동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양주시 전담인력과 양주경찰서 지원인력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무료 성폭력상담소 안내 스티커를 제작·부착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감 해소와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양주경찰서는 양주시 불법촬영 점검 담당자가 학교 방문 시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해 동행 지원하고 성실한 점검 수행과 투명한 결과 보고를 위해 각 기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함으로써 점검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내 고등학교



교에서 남성교사가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며 일선 교육 현장의 불안감이 만연한 상태”라며 “앞으로 각 기

관과 협력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며 교내 안전체감도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투트랙(two-track)’ 단속

대전시는 7월 19일부터 8월 말까지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시·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구와 대덕구 관할의 대청호 주변지역이다. 자치구별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자체 단속이 어려운 경우 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단속을 지원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형질 변경 등 대청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과년도 적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한편 신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전략으로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위생·건축 등 관련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DB화를 통한 추적관리를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



응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한다.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고의·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에 따라 영업장 폐쇄,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이 취해진다.

임목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특별단속을 계기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불법촬영 엄연한 성범죄, 여성안심 창녕!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 공공시설 화장실 점검 나서



창녕군은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이 지난 19일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위해 본격 활동을 나섰다

고 밝혔다. 여성안심보안관 20명과 창녕군 시설관리공단 직원 5명이 참여해 군립수영장, 군민체육관, 공설운동장, 공설장례식장, 추모공원을 비롯한 화

양산군립공원, 우포늪 생태체험장, 산토끼 노래동산 총 8곳의 화장실을 점검했다.

화장실 앞에 점검 중 팻말을 설치해 두고 전파 및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양변기와 물탱크 주변, 휴지걸이, 휴지통, 천장 환풍기 등 카메라가 있을 만한 공간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 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스티커를 화장실 내에 부착하는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은 지난달 28일 발대식을 가졌다. 매일 정기적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버스터미널,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관내 47개 화장실 및 탈의실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의심사례 발생 시 현장 보존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다.

남민영 여성안심보안관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이 나서게 됐다”며, “취약 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점검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남영경/기자

파주시, 여름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파주시는 여름철을 맞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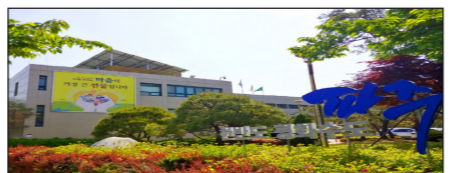
도시공원 70곳에 설치돼 있는 조팝놀이대, 미끄럼틀, 그네, 바닥 우드칩, 충격흡수용 바닥재 등을 점검하는데, ▲연결부위 ▲그네 줄 ▲목재 다리 ▲바닥재 훼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시설물은 즉시 조치하고 전문 업체를 통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기 확보된 시설 유지비를 우선 반영해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 방학을 맞이해 어린이들의 외부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안전수칙에 대한 지도 점검도 함께 추진한다.

정훈수 파주시 공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놀이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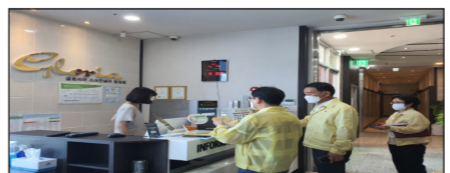
함안군, 간부공무원 코로나19 특별점검 실시

함안군은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시행과 함께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부서별 국장, 실장, 사업소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소관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강화된 방역수칙 홍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주요 방역지침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행사·집회 50인 이상 금지 ▲중요시설 주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전면 중단된다. 접종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간부공무원을 시설별 점검책임관으로 지정해 방역수칙 점검을 시행하고 전 시설물 부서책임제 운영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군민들도 개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영훈/기자



태안소방서,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 지속 운영



태안소방서는 전통시장의 자율적 안전점검 체계 확립을 위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점포 점검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태안읍 소재 동부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3곳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점포 점검의 날’은 전통시장 상인회와 점포주를 중심으로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점포별 소방·전기 시설 안전 점검 △화재위험요인 제거 △화재 취약 심야시간 순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

율점검 유도 등이다. 또한 협소한 시장 내 출몰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병행한다.

유병찬 대응예방과장은 “전통시장은 대부분 상가 밀집, 통로식 구조로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점포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시장 관계인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점검 체계 확립과 화재예방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경기도, 日 반도체장비기업 '알박' 300억 원 규모 연구개발(RnD)센터 유치

경기도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진공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일본 알박(ULVAC)그룹의 신규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알박그룹 계열사인 한국알박의 신규 연구개발(R&D) 설립을 위해 성남 분당에 위치한 글로벌R&D센터 1개층(약 689㎡)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약 300억 원이 투자될 신규 R&D센터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의 개발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알박은 이미 경기도 의정부시 내에 한국알박, PSE테크놀러지 등 6개 공장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어, 도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우수한 투자환경을 재확인시켰다.

이번 투자는 최근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따라 한국알박이 최첨단 설비 개발과 설비 국산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신규 연구개발(R&D)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한국알박은 이번 연구개발(R&D)센터 설립을 통해 연구원 등 약 8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진공장비 분야의 우수한 고급인재를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 연구개발(R&D)센터 설립으로 한국알박은 국내에서 직접 개발부터 납품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객사 인근에서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관련 장비의 국산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1995년 설립된 한국알박은 경기도에 거점을 두고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를 국내 고객사에 납품해왔으나, 최근 일본 본사의 글로벌 연구개발(R&D) 거점 확대 전략에 따라 한국 내에 새로운 R&D센터 설립을 검토해왔다.

이에 도는 판교, 성남 등 연구개발(R&D)센터 입주 가능 지역을 소개하며 수 차례 현장을 안내하고, 팽택 본사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새로운 연구개발(R&D)센터를 도에 유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연구개발(R&D)센터 유치는 외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국산화하고 우수인력 채용은 물론,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외투기업의 연구개발(R&D) 분야 유치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R&D센터는 외국계 대기업 R&D센터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 조성한 공간으로 지하 6층, 지상 28층 중에 5개층(23~27층)을 도가 소유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광주시문화재단, 예술아카데미 '온택트로 만나장(場)' 2기 접수

광주시문화재단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예술아카데미 '온택트로 만나장(場)' 프로그램의 1기 강좌를 성황리에 종료하고 2기 참여자를 모집중이라고 밝혔다.

(재)광주시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온택트로 만나장' 시리즈는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집안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지난 1기 운영부터 관내는 물론 인근 타 지역에서까지 높은 관심을 받고있다.

2기 프로그램은 오는 8월 9일 시작하며 미술, 인문학, 도예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강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 1회, 총 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성인 대상 강좌는 감성 미술실기 '감성수채화 일러스트', 예술과 삶에 대한 사고를 확장시키는 인문학 강좌 '집콕시대 영화가 들려주는 이야기', 그림책과 음악의 만남으로 서로 다른 예술 영역의 접점을 발견하는 융복합강좌 '그림책 음악술' 3가지 강좌가 진행된다.

어린이 대상 강좌는 도자실습 '도자야 놀자', 미술 창의실습 '상상열기' 2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실습 위주로 사

물을 통해 상상력을 표현하고 작품에 대해 소통하며 창의력을 높여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은 해당 과목의 실습 키트를 집으로 배송해주는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치 선물 꾸러미를 받는듯한 색다른 즐거움을 더한다.

또한, 수강생이 만든 실습작품들은 연말 '남한산성아트홀' 전시실에서 전시를 진행하는 계획도 있어 참여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단편적 프로그램이 아닌 2차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운영으로 참여자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각 강좌의 커뮤니티를 별도 운영하여 참여자와 강사, 재단 담당자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수강생은 커뮤니티를 통해 다시보기와 실습 팁 등 다양한 수업 정보를 제공받으며, 수업 이후에도 강사, 타 참여자들과 함께 교류하고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어간다.

참여자 간 소원한 모습을 보이는 대부분의 온라인 강의와는 다르게 오프라인 대면 강의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이유다.

(재)광주시문화재단 오세영 대표이사는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시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며 집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예술아카데미를 통해 일상에 활력과 즐거움을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강호/기자

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300만원 지원

2021년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기간 : 2021. 7. 26.(월) ~ 8. 6.(금)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 최대 300만원
* 접수 및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② 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
③ 85㎡이하 임차계약 및 주민등록
④ 대출잔액의 1억5천만원 이내

[제외대상]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공공임대 거주자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부담감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2021년 제2차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1. 7. 12.) 기준으로 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② 부부 모두 무주택자 ③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④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⑤ 대출금의 한도는 1억5천만원 이내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삼백만

원까지 이자 지원(1년 1회, 최장 4년)이 가능하며,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공고일에 앞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 하며,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대출이자 지원은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있는 사업으로, 지원 범위 등을 감안할 때 군포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 등으로 많은 신혼부부의 관심과 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군포시는 예상하고 있다.

정구정 군포시 건축과장은 "군포시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자립기반 강화와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해서 신혼부부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원종균/기자

구리시 작은도서관, 책놀이 키트 '독도는 우리땅' 배부

구리시 작은도서관은 시에 거주하는 10세에서 13시까지 아동 각 12명씩 총 60명에게 7월 20일부터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주제로 책놀이 키트를 선착순 무료 배부한다.

책놀이 키트는 아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갖게 만들기 위해 '비대면 독서 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도서 목록과 함께 배부하는 사업으로, 7월에는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주제로 독도 모양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게 구성된 독도 만들기 키트가 제공된다.

신청자는 책놀이 인증샷을 도서관에 제출하면 인증한 날로부터 1년간 대출권수를 10권으로 확대시켜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 "도서관에서 정기적인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 접수는 7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대출회원을 갖고 가까운 작은도서관을 방문하거나 구리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는 7월 28일부터 회원증을 지참해 구리시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를 방문하여 키트를 수령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책놀이 키트 배부
독도는 우리땅

신청기간: 2021.07.20(수) ~ 소진시 까지
키트수량: 2021.07.20(수) ~ 08.06(금)
신청방법: 구리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현장접수
구리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행사 신청-예약 프로그램 신청
대상: 구리시 거주 10-13세
키트 활용 시연 및 활동지 인증샷을 담담자 게시물 전송하면 대출권수를 두배로(10권)올려드립니다.(신청일로부터 1년)

온라인 접수 2021년 7월 20일(화)

한편, 구리시 작은도서관은 지난 3월에는 5세~7세 유아를 대상으로 '씨앗을 심으면 지구가 살아나요', 5월에는 초등학생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마음이 이만큼 자라요'라는 주제로 책놀이 키트 배부 사업을 운영하여 시민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최만식/기자

백군기 용인시장, 처인구 모현읍 경안천교 공사현장 점검

백군기 용인시장이 18일 처인구 모현읍의 경안천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백 시장은 이날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를 지나는 국도45호선과 모현읍 일산리 구간을 연결하는 경안천교 개설 공사 현장에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가 103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 착공한 공사는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이며, 시는 연장 121.5m, 폭 14.7m 규모의 경안천교가 개설되면 그동안 협소한 제방도로를 이용했던 주민들의 이동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생활권 확대에 주민편의

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모현읍 왕산리 모현교사거리(중앙할인마트 앞)도 방문해 이달 초 설치한 도심형 회전교차로도 살폈다. 도심형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를 예방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예산 1억8000여만 원을 들여 지름 24m 규모로 설치했다.

백 시장은 "교통 문제는 안전사고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고양시, 청년 진로 탐색 돕는다



고양시는 '고양 미네르바학교'를 오는 7월 21일부터 9주간 온라인(ZOOM)으로 운영한다.

'고양 미네르바 학교'는 2020년 시작한 청년 진로프로그램으로 진로를 고민 중인 청년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진로에 대한 탐색을 지원, 각 개인의 꿈과 비전에 맞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번 일정은 ▲창의 교육(8회) ▲프로젝트 전문가 멘토링(4회) ▲진로상담(2회)으로 구성돼 있다. 진로에 관심이 있는 15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문제해결 중심의 실무형 프로젝트를 경험하게 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고양시 통합일자리센터의 청년전담 상담장구를 통해 취업·진로 상담을 받기 때문에 인턴이나 대외활동 등을 탐색하는 데 소비되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일자리정책과 박광영 과장은 "이번 진로교육은 일방향 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실무 체험형 교육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미래동용성을 고려한 직업역량 육성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고양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일생학교'를 통해 취업·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포혁신교육지구 '경계 없는 마을학교 프로그램' 현장 참관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의원, 김포교육지원청 장학사가 '경계 없는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김포시 관계자와 시의원 등 일행은 김포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현장 점검을 위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총 5회의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함께 했다.

'경계 없는 마을학교'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의 삶과 얹어 일치하는 교육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마을 교육자원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41개 마을단계를 통해 62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마을교육 참관은 김포시 관내 초·중학교와 마을체험터에서 진행되었으며 '다나무는 내 친구', '사회적 경제', '명탐정 학교소 비밀을 찾아라', '인공지능 앱 & 모바일 앱',

'꿈을 키우는 목장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경계 없는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포함한 김포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배움의 중심이 되고, 학교와 마을이 배움터가 되어 김포를 사랑하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의정부시 호원2동,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의정부시 호원2동은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민원 수요에 맞춰 주민편의를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고객 감동 행정실현, 다시 찾고 싶은 행정복지센터가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민원서류만을 발급받는 동사무소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함께하는 호원2동을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주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팩스기와 복사기를 민원실 입구에 설치하여 모바일팩스 사용이 어려운 분이나 사무실 팩스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작지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 동 실정에 맞는 크고 작은 맞춤형 시책 발굴에 앞장서 지역주민과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아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전동드릴, 톱 등 공구 물품 대여 서비스(행복나눔공구)를 통해 공유 자원서비스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라돈 농도측정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센터에서 라돈측정기 대여가 가능하다. 공구 및 라돈측정기 대여는 유선이나 직접 방문 접수로 1박 2일(24시간) 동안 대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친 시민들을 위한 힐링공간 제공을 위해 기존 청사 옆 만남의 쉼터를 리모델링하여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센터를 여름철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쉼 공간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 호원2동으로 전입온 주민에게 낯선 동네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도록 "우리동네 한눈에"안내서를 제작하여 배부한다. 새로운 동네에 대한 각종 행정정보 및 생활정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매년 제작하여 전입신고 시 안내에 활용하고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주민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안내서엔 의정부시의 관공서, 편의시설, 공원 및 체육시설의 위치, 운영시간, 전화번호 등과 불법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 전입 이후 기존 복지혜택의 유지 또는 변경 안내, 복지서비스 현황 등이 담겨있다. 예비성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만 18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들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시 축하카드 전달로 앞으로의 인생을 축하하고 응원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방문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규격이 맞지 않거나 미지참했을 경우 재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어르신들의 사진촬영을 무료로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을 원하지만 정보부족 및 방법을 몰라 기회를 잡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세밀하게 맞춤 직업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구직 요청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담한 구직자들의 특성을 기록한 후 채용공고나 나면 문자 및 전화 안내 등을 실시하고 면접 경험이 없는 구직자는 동행면접을 통해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호원2동은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항상 미소로 맞이하는 민원응대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최

하남시,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하남시는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개선과 재해예방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준공)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이번 사업은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를 제외한 23개 단지(7,162세대)가 신청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석축·옹벽 등 시설물 보수 ▲노후 공용배관 보수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등 부대시설 개선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등 18개 항목이다.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관리주체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해 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와 세대수, 공사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 여부 등은 내년 초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공용시설 등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입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09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까지 총 33개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며, 올해는 은행아파트, 성원상떼빌 2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박강호기자

안성시, '2021 안성천 청춘버스킹 전국 오디션' 연기

안성시는 '2021 안성천 청춘버스킹 전국 오디션' 본선 개최일을 오는 9월 18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예선을 거쳐 8월 21일 오디션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참가 접수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오디션 본선을 9월 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오디션 일정 연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초과하고, 일일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인 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을 예방하여 시민과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접수 기간이 연장된 만큼 더욱 많은 참가자가 참여하여 실력을 뽐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 안성천 청춘버스킹 전국 오



디션'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원준근기자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 동남아·일본·터키 해외시장개척 지원 화상상담회 참여 기업 모집



광명시오는 10월 열리는 '해외시장개척단 화상상담회'에 참여할 기업을 7월 19일부터 8월 3일까지 모집한다. 광명시는 매년 해외진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상담회를 개최한다. 화상상담회는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이며 대상지역은 동남아, 일본, 터키이다.

광명시는 이번 화상상담회를 통해 해외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통역, 샘플 발송비 일부 등을 지원하고 상담회 참여 이후 2개월까지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모집기업은 10개 기업이다.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생활소비재, 산업재 등 종합품목이면 신청할 수 있다. 광명시는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수출성사 가능성이 높고 기존 해외시장개척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을 우선해 참여기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력받아 작성해 관련서류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로 이메일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1층 경기중진공지원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기업지원과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순희기자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요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경북도, '새바람 행복버스 청송군 현장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는 19일 청송군청 회의실에서 열여덟 번째 '새바람 행복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송군 현장 간담회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윤경희 청송군수, 지역의 과수산업 분야 대표 및 기관·사회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경북 과수산업 기(氣) 확실히 살리자"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을 펼쳤다.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민생 애로사항 건의 및 답변의 시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여름철 장마와 폭염을 비롯해 과수화상병 방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사과 재배 농가와 유통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정취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봄철 이상 저온 현상으로 서리, 병해 피해를 겪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애로사항에 대해 과수 농가에 품종 갱신, 관수시설, 난방기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여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영주, 의성, 영양, 봉화)에 2축형 과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지난해부터 재배 매뉴얼을 개발해 배부 중에 있다"고 답하며 "도에서는 과수 연구개발 확대와 신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과수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지로서 농가수 1위, 농가인구수 1위, 경지면적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크고, 특히 우리나라 대표과일인 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의 최대 주산지로서 그 뛰어난 맛과 우수한 품질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현재 농촌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구온난화, FTA 시장개방, 코로나19 등 각종 전염병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급변하는 새로운 농산물 시장의 소비트렌드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에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경상북도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농산물 생산현장과 유통 체계를 운영하여 창의적 연구 역량을 농업 분야에 융합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미래 농업으로의 전환에 한발씩 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안동과 영주에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예비비(44억원) 편성과 예방·방제 강화로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간담회 후 청송군 주왕산면에 위치한 사과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자동 관수·관비시설과 자동병해충트랩 등 스마트팜 시스템을 이용한 과수 재배법을 살펴보고, 농가주 애로 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과수 농업에 정보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사업'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스마트 농업 확산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농식품부에 사업량 확대와 국비 보조율 상향을 건의하여 노동력 부족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 현실에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과수의 수형에 따라 생육과 수확량이 좌우되는 만큼 2축, 다축, 구웃(guyot) 등 다양한 수형 변화를 적용한 도시범사업 등을 통해 재배 기술을 정립하고, 매뉴얼 제작·보급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6개 시·군(포항, 김천,

김세기기자

인도네시아에는 대구경북 홍보 일등공신 'K-GO'가 있다

인도네시아 내 대구경북 홍보 SNS 서포터즈, K-GO 1기 활동 평가

대구시 자카르타 사무소는 SNS 홍보단(K-GO)을 10개월 동안 운영해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과 대구경북의 관광자원을 인도네시아 전역에 널리 알렸다. "대구-경북 같은 지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에 놀랐고,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기 때문에 한번 써보면 다시 찾게 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랄이나 성분표시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한국을 8번이나 갔지만 대구-경북은 기본 적이 없어요. 대구-경북에 한국적인 문화와 관광지가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꼭 보고 싶어요"



무소 인스타그램(daegu-gyeongbuk.id)에서 제공되는 홍보 내용을 자신들의 SNS에 홍보하고, 제품 품질, 디자인, 가격 등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9회에 걸쳐 1,139건의 홍보와 154,331건의 좋아요 및 5,742건의 댓글을 통해 대구-경북의 품질 좋은 제품과 지역관광을 인도네시아 전역에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홍보 제품으로는 지역 중소기업 수출(희망)제품인 화장품(마스크팩, 립틴트, 기능성로션), 가공식품(문경오미자, 떡볶이), 생활용품(치약, 안경클리너) 등이 있으며, 경주 아시아송페스티벌, 대구국제마라톤 등 대구-경북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현지에서 알리는 데도 앞장섰다. 사무소는 그간 활동실적 평가로 2명의 최우수자를 선발해 시상했으며, 최우수상을 받은 나디아 살라

빌라(Nadia Salabila, 21, 학생)는 "K-GO 활동을 통해 대구-경북의 우수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 코로나가 끝나면 꼭 대구-경북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칼리만탄 폰타아나에 거주하는 또 한 명의 수상자인 무함마드 파자르(Muhammad Fajar, 25, 회사원)는 "문경오미자 레시피 따라하기와 댄스미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K-GO 활동을 통해 대구-경북을 알게 되었고 더 나은 홍보방법을 고민하면서 자신이 더 창의적으로 바뀌었다"며 K-GO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사무소는 제1기 K-GO 활동 내용을 담은 유튜브용 동영상과 흥겨운 음악 '뽀빠이'에 맞추어 제작하고 시상자 명단과 함께 발표해 그동안 서포터즈들이 어떻게 대구-경북을 인도네시아에 알렸는지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 자카르타사무소장은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에 필요한 정보 등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사무소로 연락을 해 주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구-경북 자카르타사무소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영기기자

경주시, 오토렉스(주)와 신설공장 구축 MOU 체결

미래 특장차(수소전기차/버스) 개발 및 생산 공장 구축, 향후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조성 예정



경주시가 지난 16일 오토렉스(주)와 150억원 규모의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박동찬 오토렉스(주) 사장,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토렉스(주)는 MOU체결에 따라 경주 외동일반산업단지(1만 6123㎡)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고 50여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신설공장은 미래 특장차(수소전기차/버스) 개발 및 생산 공장으로서 지어지며, 향후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결정해 준 오토렉스(주)에 감사드린다"며, "경주시는 내년에 준공되는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과 도화센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최선의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오토렉스(주)는 지난 2000년에 설립된 현대/기아자동차 커스터마이징(맞춤제작) 제품 및 특장차 전문기업으로 연매출이 300억원에 이르는 강소기업이다. 올해 울산시와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및 서비스 실증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로 '2021 울산스타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반식기자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깨끗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에서는 7월 16일 봉화군 봉성면 문화복지센터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회원들은 바르게살기 행동강령을 낭독하고 봉서주 주변과 인근 하천을 구역별로 나누어 장마에 쓸려온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을 펼쳤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행사장 출입자 명부 및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참여 회원에 대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회원간 거리두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여 개최되었으며 회원에게 개인 방역수칙

홍보도 이루어졌다. 김기백 회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어 행사 개최에 조심스럽지만, 지역민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매년 힘써주시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회원들의 힘을 모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는 국토대청결운동, 농촌일손돕기 및 사랑의 연탄배달 등 지역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반식기자

영주시, 5년 연속 산불예방 우수기관에 선정

경북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1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는 매년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방지 추진사항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영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영주시는 '마을공동체사업', '산불재로! 영주시! 산불조심 릴레이 캠페인' 등 특별시책을 시행했으며, 종합민원실 전광판 송출, 산불조심 각인마스크 배부 등 독특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산불발생 요인 사전제거와

논·밭두렁 등 산림연접지 내에 불법소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선제적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했으며, 적절한 인력과 장비 배치로 봄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행기 단독 운용으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 금두섬 산림복지과장은 "올해 봄에 비가 자주 왔지만 산림연접지(100m) 내에 화제가 자주 발생해 산불발생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지만 영주시 전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계도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산림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산불예방을 통해 안전한 영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대구소방, 상반기 화재 전반적 감소... 건수, 인명·재산피해 모두 줄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21년 상반기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634건의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 37명, 3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2.8%(18건) 감소했고, 인명피해 11.9%(사망 2명, 부상 3명) 감소, 재산피해도 근소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인명피해가 6.6% 증가한 반면 대구에서 인명피해가 감소한 이유는 '최고 수위 우선 대응' 원칙에 따라 화재 초기 집중 투입한 소방력으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초동대처가 주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화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47.9%(304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2.9%(145건), 기계적 요인 11.6%(74건) 순이다. 절반가량을 차지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담배꽂이·불꽃·화원방치 12.5%(38건), 음식물 조리 9.9%(30건), 용접·절단·연마 5.6%(17건) 순으로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상업이나 산업시설 등 비주거시설에서 282건(44.5%), 주거시설에서 146건(23.0%), 기타 야외에서 116건(18.3%), 차량에서 77건(12.1%)이 발생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 화재진



압 활동으로 45명을 위험에서 구조했고 112건의 화재는 초기 안전조치로 피해 없이 화제를 방지했다. 주목할 점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상반기 2명인데 비해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구소방에서 역점 추진 중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치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에 대한 주의만 기울여도 절반 가까운 화재를 막을 수 있고, 주택용 소방시설만 설치해도 주거지역 사망 사건을 대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영기기자

산청·함양사건 70주년 추모... 학생문예공모전

산청군 9월 30일까지 제7회 공모전 접수



산청·함양사건 70주년을 맞아 역동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한편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학생 문예 공모전이 진행된다.

산청군은 오는 9월30일까지 '제7회 산청·함양사건 학생 문예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작품은 인권·평화·생명을 주제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 된다.

합성, 작품의 우수성, 독창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입상작을 선정한다.

대상 2편(각 100만원), 최우수 4편(각 50만원), 우수 6편(각 30만원), 장려 9편(각 10만원) 등 총 21편의 작품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상장은 경남도지사과 경남도교육감 명의로 수여된다. 작품 분량은 운문(시)는 분량제한이 없고 산문(수필)은 A4용지 2장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운문·산문부분 모두에 응모할 수 있지만 시상은 1개 부문만 가능하다.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대안학교 포함)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와 출품작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오는 10월22일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홈페이지와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시상 및 상장 전달은 11월5일 예정된 제70주년 산청·함양사건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행사일에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청 홈페이지 또는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청·함양사건'은 제주 4.3 사건, 거창사건과 같이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2월7일 국군의 공비도발 작전 수행 당시 벌어진 양민 희생사건이다.

당시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방곡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에서 민간인 705명이 영문도 모른채 통비본자(공비와 내통한 사람)로 간주돼 집단 학살됐고, 거창군 신원면에서도 719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청군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한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합동모역인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교육극' 효과 '만점'

울산시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울산교육청,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진행한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교육극 사업이 학교폭력 인식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울산교육청,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진행한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교육극 사업이 학교폭력 인식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초등학교 대상 '손잡아 줄게' 공연을 지난 4월부터 시작해 7월 7일 덕신초를 끝으로 모두 29개교에서 32회 3,68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극을 관람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 93점(100점 만점)으로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

또한 관람 후 의식변화 조사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되었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람 인원이 제한되어, 공연 장면을 방송시스템으로 실시간 송출해 현장관람을 못하는 학생들도 교실에서 생동감 있는 영

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뮤지컬 '나만 아니면 돼?'를 18개 중·고등학교에서 상연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울산시의 제안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 9년 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울산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만 아니면 돼?'는 평소 학교폭력과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던 다연이가, 학교폭력을 방관하던 반 친구들에게 '죽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로, 결국은 방관자 또한 제2의 가해자임을 알리는 작품으로 극단 '문화팩토리 마굿간'(대표 박상용)의 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김기현/기자

"통영관광협업센터 남해안여행라운지 및 통영여행플랫폼"위탁 운영

7.16. 통영시, 이랑협동조합과 위·수탁 협약 체결

통영시에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통영관광협업센터 남해안여행라운지 및 통영여행플랫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랑협동조합과 7.16.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통영관광협업센터 남해안여행라운지 및 통영여행플랫폼은 지난 2020년 상반기 리스타트플랫폼 5층과 한산대첩관광 관리소를 각각 리모델링하여 조성하였으며, 지난 7.5.까지 10개월간 메타기획컨설팅에서 시범 운영하였다.

앞으로 수탁자인 이랑협동조합에

서는 통영관광협업센터 남해안여행라운지 및 통영여행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기획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며, DMO(지역관광추진조직)와 연계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통영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위·수탁 협약을 통해 통영관광협업센터 남해안여행라운지 및 통영여행플랫폼이 더욱 활성화되고 관광거점으로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부산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적극 동참해주세요!

부산시 승용차요일제

입소문 내기 경품 이벤트

참여기간 2021. 7. 12.(화) ~ 8. 1.(일), 3주

참여방법 ① 부산시 블로그(blog.naver.com/cooolbusan)에 접속
② **입소문 내기 이벤트**를 본인의 SNS, 블로그, 카페, 밴드 중 하나에 공유
③ 공유한 게시물 URL을 블로그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남기기

참여혜택 추첨 통해 100명 선정, 상품권 증정(지역내 20명, 쿠폰(22) 80명)

당첨자발표 8. 5.(목) 14:00, 부산시 블로그에서 확인
※주우 인력지원 취업 예정이며, 미제출시 당첨이 취소됨을 유의

부산시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교통체증을 줄이는 승용차요일제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시는 2030 젊은 세대의 승용차요일제 신규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승

용차요일제 입소문 내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자발적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으로, 참여자에

게는 ▲자동차세 10% 할인(연납하면 최대 18%)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주거지 주차요금 20% 할인 등 혜택을 주어진다.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이번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부산시 공식 블로그에 접속한 후 이벤트 페이지를 개인 블로그, 카페, 밴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한 뒤 게시물 주소를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남기면 참여가 완료된다. 시는 추첨을 통해 총 100명을 선정해 치킨, 커피 등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박진우 부산시 교통국장은 "승용차요일제는 미세먼지, 교통체증, 에너지 낭비와 같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세금과 주차비도 아낄 수 있는 1석 4조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번 이벤트에 많은 누리꾼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진주시-한국승강기안전공단 '그린 협약'체결

진주시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은 19일 오전 11시 30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진주시 관내 도시공원과 가로수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그린 협약'을 체결했다.

그린협약은 2019년 1월부터 진주시와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환경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이날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첫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날 협약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임직원 45명으로 'KoELSA 환경지킴이 봉사단'을 구성하여 읍면동과 연계한 환경정화 활동과 부산물 처리 등 봉사활동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생활 속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아름다운 화합이 이뤄지고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원활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3,850백만원(국비 2,695 시비 1,155)로 정상 추진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서부취수장 주변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해 생활편익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분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환경문화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분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범기수원지 인근의 소유지를 활용해 산책로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범기수원지와 연계하여 방문객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남궁영기/기자



현재 공사 임찰을 통해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었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하승중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 기반 확충과 환경문화 개선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거제시, 청년 한 달 살기 성공적으로 마무리

거제시는 청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청년,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 - 보물섬 거제에서 보물섬 기'프로젝트가 지난 한 달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는 청년친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4주간 거제 옥포동 일대에서 10명의 청년이 참여해 ▲로컬푸드 만들기 ▲소셜비즈니스 교육 ▲문화관광지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는 최근 지역의 청년 유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거제시가 청년층 유입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친화 프로그램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참여 청년들은 지역의 로컬크리에이터가 돼 성과공유회에서 지역과 로컬라이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지역주민과 유대감을

형성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오혜성(23, 여수시)씨는 "거제도 한 달 살기를 통해 많은 관광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4월 '청년,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보조사업자로 후아유 커뮤니티를 선정했으며, 한 달 살아보기 참여 청년 모집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3기수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영훈/기자



울산소방본부, 여름 휴가철 대비 휴양시설, 화재 예방 컨설팅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말까지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의 화재 안전을 위한 화재 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펜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됨에 따라 국내 휴양시설을 찾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영장, 자연휴양림, 펜션 등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휴양시설 내 소방시설 적정 여부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정 행위 지도 ▲야영장 소화기 비치 및 숲·잔불처리시설 안전 사용 ▲문어발식 콘센트·노후전선 사용 및 분전반 주변 인화 물질 방치 여부 ▲소방차량 활용 예방순찰 등이다.

정병도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휴양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휴양시설을 찾는 시민들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안전한 휴가를 보내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김철우 보성군수 송영길 당대표와 주말 회동... 현안건의

김철우 보성군수가 18일 전남 수해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주말 회동을 가졌다. 김 군수는 송 대표에게 당 차원에서 수해복구 지원과 보성군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보성군이 제안하고 순천시가 함께하는 여자만 국가갯벌 해양정원 조성사업(2,500억 원), 율포항 국가어항 지정 등이 다.

김철우 군수는 송 대표와 여자만 국가갯벌 해양정원 조감도를 보면서 사업 계획과 청사진을 공유했다.

특히, 기후와 환경 분야에서 갯벌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깨끗한 해양생태계를 지속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갯벌을 활용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 개발여건, 관광 현황, 경제성 분석 등 전 분야 평가항목에서 우수



김영안기자

한 점수를 받아 우선순위 상위권 지정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어항 총량제로 인해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보성군 율포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총량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보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당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

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남해안 최대 해양레저 관광 거점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율포해양레저거점사업, 전라남도 교직원 교육 문화 시설 건립, 어촌뉴딜 300, 장도~별교 통합관광 테마로드 조성사업 등 다양한 해양 분야 사업을 유치·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집중 호우로 전복 1,430만마리 폐사... 251억원 피해

집중 호우로 민물이 바다로 한꺼번에 많은 양이 유입되면서 진도군에서 전복이 대량 폐사해 25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진도군에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504mm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저염분화로 추정되는 폐사 전복 피해 규모는 19일 현재까지 76어가 16,000칸에서 양식하는 1,430만마리로 조사됐다.

진도읍 전두·청룡·산월마을 어촌계의 양식 전복이 집중적으로 폐사가 발생해 국립수산물연구원 남해수산연구소에서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해 최근 현장을 방문했다.

또 전남도와 진도군은 어민 피해를 조사했으며, 국립수산물연구원 폐사체 등을 수거해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어민들은 "많은 비로 인한 바닷물의 저염분화로 폐사가 진행되는 전복의 경우 폐해를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시간이 갈수록 전체 폐사 규모는 늘



강양호기자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복 폐사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립수산물연구원 남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집중 호우로 저염분이 지속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폐사가 이루어지므로 양식장 예방 등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집중 호우로 인한 폐사 조사를 전복, 참모자반, 새우, 넙치 등 수산물 전

체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복 폐사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립수산물연구원 남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집중 호우로 저염분이 지속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폐사가 이루어지므로 양식장 예방 등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집중 호우로 인한 폐사 조사를 전복, 참모자반, 새우, 넙치 등 수산물 전

광주광역시 에너지 전환 발걸음 빨라진다



광주광역시가 시민·기업·각급 기관과 함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전격 선언한 이후 구체적인 실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체계 구축, 시민의 에너지 전환 동참, 마을단위 실천운동, 기업·행정의 적극적인 참여에 이르기까지 광주공동체가 전방위적 실행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시, 시의회, 시교육청,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탄소중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시민 주도의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행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시민은 에너지 전환 실천운동을 펼치고, 기업은 재생에너지 100%(RE100)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며, 행정은 인공지능과 연계해 에너지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가

고 있다.

시민들은 '내가 사용하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각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협동조합을 통해 시민 햇빛발전소를 구축하는 등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민과 공공기관이 협업체 만든 제1호 시민햇빛발전소가 지난 4월 가동을 시작했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들이 에너지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자금을 마련해 건립한 태양광발전소로, 2045년까지 총 145개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소 수익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에너지 복지나 새로운 햇빛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재투자한다.

광주시는 시민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8억원 규모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마을'도 눈에 띈다. 각 자치구마다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조성해 풀뿌리 마을 단위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전환 실천운동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광산구 첨단전환마을 네트워크가 문을 연데 이어, 13일에는 동구 지원1동에 '지원마을 에너지전환 연대'가 개소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또 오는 8월말까지 북구 일곡마을에 '일곡전환마을 네트워크'와 서구 '전환마을 품앗이', 남구 '양림전환마을 네트워크'가 잇따라 문을 연다.

'에너지 전환 마을'은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 지역자원 조사 및 연구, 지역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 마을별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개발하며 사업이 종료되는 12월에는 결과 발표회를 통해 다른 마을로 활동 성과를 확산한다.

기업도 재생에너지 사용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월 13개 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RE100)에 동참하기 위해 '2030 기업RE100추진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들 기관과 기업은 공장이나 건물 내 재생에너지를 직접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 있다.

광주시는 서남해안권의 풍부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산단 입주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모델도 구상하고 있다.

행정에서는 광주의 강점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활성화되면 햇빛발전소에서 다양한 전력이 생산되고, 산단, 기업 등에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불규칙하게 발생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런 복잡한 전력 수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타 시도에 앞서 구축한 인공지능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을 융합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그린에너지 ESS(에너지저장장치)발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민간 중심의 새로운 전력거래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규제자유 특구 사업은 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 2.5km² 구역 내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 자동차나 건물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현재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설계가 진행 중이다.

또한, 아파트 7개 단지 6240세대를 대상으로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 사업과 조선대학교 내에서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신재생에너지 연계 직류 전력거래' 사업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력거래와 효율적 에너지 이용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지난 5월 정부가 공모한 '방음터널 태양광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국비 90억원을 확보했으며, 3년간 164억원을 투자해 방음벽과 방음터널 일체형 발전설비 기술을 개발해 그린뉴딜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에 뒤처진 국가와 도시, 개인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면서 "광주가 선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을 이루고 광주를 대한민국의 그린뉴딜이 이끌어가는 선도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쾌거!

영암군이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5월부터 공모를 통해 도 부문, 시·군 부문 총 62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시·군 부문 42건 중 전문가 서면 심사를 통과한 10개 시·군 사례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도민 평가와 직원 투표, 주제 발표 등 3가지 항목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군은 적극행정을 통해 계절과일인 무화과를 4개월 맞출 수 있는 지역대표 먹거리로 변신시키는 데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영암은 전국의 생산량 56%를 차지하는 무화과의 주산지이자, 첫 재배지

로서 무화과 주산지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무화과의 맛·상품성은 최고이지만 저장성이 낮아, 수확철(8~11월)에 생과로 맛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달빛무화과 싹뻗을 개발·판매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우수사례를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릴길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활용한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농가 소득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이승옥 강진군수, 폭우 피해현장 찾아 대책 마련 약속

강진군은 지난 17일 오전, 이승옥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대표, 김승남의원, 김병주의원, 이용빈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진군수협장 등 관계자 60여 명이 마량면 전복양식장을 찾아 어민들을 위로하고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강진군 전복양식 어가는 31가구로, 40ha의 면허지에서 총 2,261만 미(9,400톤)를 해상가두리에서 양식 중이며, 지난 5일부터 사흘동안 쏟아진 집중호우로 해상 전복양식장에 민물이 덮쳐 전복 2천 261만 마리가 폐사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사내·만덕간척지의 담수방류가 시작되면서 바닷물의 염도가 15% 이하로 낮아지고 담수에 섞인 황토가 전복의 숨구멍을 막아 대량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전복협회 회장은 "생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이 100억 대이고 대부분 어민들이 최대 대출한도까지 받은 형편이라 정부 지원없이 생업에 다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며 "전복 완전 폐사로 학비, 생계비도 낼 수 없는 형편까지 돼 잡도 이를 수가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정부 재난금 지원기준은 자연재난조사복구지침규정에 의거해 어가당 최대 5천만 원이다. 출하를 앞둔 전복이 완전 폐사되면서 현재 재난지원금으로는 100억 원 대의 대출금과 외상빚을 갚는데 턱없이 부족해보인다.

이날 현장에 참여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승옥 강진군수는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강진·해남·진도·장흥 특별재난지역 지정,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산정기준에 농작물·산림작물·가축 등 피해 포함, 비닐하우스와 포도·과수 등 일부 품목 복구 지원 단가 인상(50%→100%), 한우·젓소 임식 복구비 인상(30%→50%), 양식시설물과 전복·넙치 등 수산생물 지원단가 인상(25~33%→50%), 전복 치폐 복구비 산정기준 신설 등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전복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피해어민들이 적절하게 보상



김정길기자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수부장관, 행안부장관, 기재부장관과 상의해 김영록 도지사과 함께 피해복구와 어민들의 빠른 생업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함께 재난을 이겨내자"고 전했다.

'장성 지역경제가 된다!' 장성군 중소기업 지원 주목

4개 기업 2093억원 규모 투자 유치 성공... 지역 맞춤형 지원 '주효'

장성군이 펼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장성군에서 출연금을 지급한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규모는 2020년 100개사(社) 290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54개사에 139억원을 기록했다.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으로는 먼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을 들 수 있다. 스마트 공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지능형 생산 공장으로서, 군은 3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설비와 시스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에는 지역내에서 총 13개 업체를 선정했다.

지난 6월에는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장성군 스타기업을 지정했다.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스타

기업으로 선정되면 시제품 제작, 품질 인증, 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 업체 심사를 거쳐 ㈜이엘티와 ㈜논농을 스타기업, 세 번째로 평점이 높은 ㈜이엔이피에스를 예비스타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밖에도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원사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사업비 6억 6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 기업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 개발 ▲기술 사업화 ▲마케팅 ▲판로 개척 등에 대해 분야별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군의 꾸준한 기업 지원은 시너지 효과로 이어졌다. 장성군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4개 기업 2093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로 인해 총 1078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얻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면서 "관내 기업들이 건강하게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도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오홍관기자



완주군 전역, 19일부터 4인까지 사적모임 제한 - 완주 혁신도시는 2단계 격상

군산시, 도내 4개 지역 거리두기 강화 2단계 +α

군산, 19일 0시부터 8월 1일까지 사적모임 4명까지 강화 시행

완주군이 19일부터 4인까지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4차 대유행의 선제적 강력 대응에 적극 나섰다.

완주군은 이날 오후 “전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방침에 맞춰 완주 혁신도시에 한해 19일부터 거리두기를 종전의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은 4인까지 제한하기로 했다”며 “다만, 완주 혁신도시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1단계를 유지하되 사적모임만 종전의 8인 이하에서 4인 이하 제한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 전체적으로 보면 완주 혁신도시와 전주, 군산, 익산 등은 거리두기 2단계에 사적모임 4인까지 제한되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에 사적모임 4인 제한이 적

용된다.

앞서 완주군은 정부와 전북도 방침에 맞춰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인원은 8명까지 제한해 왔다.

완주군은 4차 대유행이 심상치 않은 데다 수도권발(發) 집단발생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면서 완주 혁신도시에 대해서 2단계로 격상하고, 완주의 혁신도시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종전의 8인까지 허용됐던 사적모임을 4인 이내로 제한하는 투 트랙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은 1단계 지역의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이 허용되나 2단계 지역인 완주 혁신도시에서는 시설면적 8㎡당 1명이 허용되고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1단계 지역이나 2단계 지역 모두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혹은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1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나 2단계가 적용되는 완주 혁신도시에서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은 1단계 지역에서는 시설면적 6㎡당 1명이 허용되며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2단계가 적용되는 완주 혁신도시에서는 시설면적 8㎡당 1명이 허용되며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완주군은 “수도권 집단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감염병 예방



법 시행규칙에 따라 19일부터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19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군산을 포함한 4개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다.

이날 김임준 군산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군산, 전주, 익산, 완주혁신 도시 등 4개 지역에서 2단계 +α(사적모임 4명까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일부터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날 총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방문자 및 내방객을 통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

이는 수도권 4단계 시행으로 비수도권 확진 비중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풍선효과로 인한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가 금지되고 플라텍, 무도장 등 유흥시설의 경우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24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동행자 외 한칸 띄우기와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김현태기자

전북교육청, “기후행동, ‘나 한 사람’부터 동참해주세요”

광주광역시 동구, 재활용 도움카페 ‘동구라미’ 개소



동 회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3일 생태환경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폐현수막을 활용해 기후위기 피켓을 제작했다. 현수막에는 ‘기업아, 멈춰! 대량생산!’, ‘대권 후보님들 경제만 살립니까? 탄소 제로 앞당겨 지구를 살립시다!’ 등 기업과 정부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늦기 전에 줄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 ‘지구는 우리의 집, 불타는 집, 물에 잠기는 집을 내 아이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장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정과 개인생활에서 전기·자동차 사용 줄이기 △탄소배출 기업의 제품 외면하기 △화력발전소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촉구 등에 시민들의 동참을 권유했다.

이날 피켓팅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지금까지는 혼자서 작은 실천을 해왔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미래, 지구를 위해 더 많이 알고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겠다”면서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한 사람부터’라는 생각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후행동에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는 지난 16일 산수둔동 화마당에 위치한 재활용 도움카페 ‘동구라미’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개소식에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테이프 커팅과 종이로 제작한 홍보 현수막 등 자원순환을 적극 실천하는데 앞장서 참여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문을 연 재활용 도움카페 ‘동구라미(東區羅美)’는 시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조성됐으며, 자원순환(recycle)을 상징하는 동구라미와 이를 통해 ‘비단처럼 아름다운 동구’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구형 자원순환 실천플랫폼의 기반이 될 재활용 도움카페는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과 자원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홍보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폐자원인 신문지, 유리병 등을 이용한 재활용 작품(14종) 전시 ▲재활용품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자원순환 문화조성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산수마당에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자동회수기 2대가 설치돼 하루 평균 2천여 개의 투명 페트병과 캔이 회수되고 있다. 기기 이용시 포인트가 적립(개당 10포인트)되고 2,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현금

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재미와 함께 자원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이용률이 높고 있는 추세다.

임택 동구청장은 “재활용 도움카페가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올바른 분리배출 자원순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는 재활용카페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가 자원순환에 대해 고민해 보고 직접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숨어있는 문화재 가치 찾아 역사문화수도 향해 성큼”

유기상 고창군수가 “고창군의 숨은 역사·문화적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문화유산 지정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과거 역사에 남아있는 훌륭한 기억들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유기상 고창군수가 아산면 삼호정(전북 유형문화재 279호)에서 국·과·관·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현안회의를 열었다.

이는 유 군수 취임 이후 고창읍성 동헌, 취석정, 무장읍성 동헌, 김기서강학당 등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유적지에서 9번째로 개최한 현안회의로 숨어있는 역사문화에 대한 공유와 현안사업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삼호정은 조선 1700년대에 지었고, 1864년에 증건한 정자로서 조선 후기의 건축학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육전 조씨 삼형제(인호 조현동, 덕호 조후동, 석호 조석동)가 시를

쓰고 글을 읽으며 거닐던 곳으로 이들의 호가 모였다 하여 삼호정이라 일컬을 정도로 조선 후기 형제간의 우애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민선 7기 고창군은 ‘잠들어 있던 지역 문화재의 가치 재발견’을 통해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주요문화재 발굴 작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로 삼호정은 올해 지난 4월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79호로 지정됐다.

유기상 군수는 “민선 7기에서 꿈꾸고 있는 품격있는 역사문화관광수도 도약을 위해 숨겨진 문화 유적지를 인정받도록 노력했던 결과에서 간부공무원들이 함께해 그 가치가 더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금껏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지역 문화재의 가치를 재창출함으로써 역사문화관광 수도 완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일기자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군 YEONGYANG-GUN

숲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길

천과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길: 영양읍성, 영양읍성, 영양읍성

빛

별이 쏟아지는 밤: 영양읍성, 영양읍성, 영양읍성

맛

산과 물이 어우러진 맛: 영양읍성, 영양읍성, 영양읍성

심

자연과 벗하던 심의: 영양읍성, 영양읍성, 영양읍성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 citiusloue 생태관광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시계곡, 참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비전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박물관,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생태휴양림, 본계수석야생화전시관

세종시, “당신의운동을보여주세요”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세종시민운동챌린지’ 진행



제10회 세종시민체육대회 성공개최 지원

세종시민운동 챌린지 Challenge

집수기간 2021. 7. 20. ~ 8. 8. (20일간)

01 아무거나 내가 좋아하는 운동하기! ※ 촬영시, 마스크 착용 필수

02 인스타그램(사진, 동영상 등)

03 내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인증샷+리뷰(영문/영문+한글) 게시

공모주제
모든이 동등하게 즐기는 마음의 운동(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개인 SNS(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에 게시) 후 링크 신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코로나19 극복 세종시민체육대회 관례의 정례회, 국민체육진흥공단, 2021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2021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응모자격
세종시민 누구나

시상내역

최우수상(2명)	우수상(5명)	장려상(20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5명)	장려상(20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5명)	장려상(20명)

결과발표
2021년 8월 16일(월) / 수상자에게 개별 공지

문의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경기운영팀
T. 044-665-9837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회장 정태봉)가 오는 9월 개최되는 '제10회 세종시민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행사격으로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세종시민운동 챌린지'를 진행한다.

세종시 최대 체육행사인 세종시민체육대회는 관내 20개 읍면동이 10개 권역으로 나눠 참가하며, 경기는 게이트볼, 배구, 배드민턴, 수영, 육상, 축구, 탁구, 테니스 등 총 9가지 종목으로 나뉜다.

제10회 세종시민체육대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이에 세종시체육회는 제10회 세종시민체육대회를 세종시민에게 홍보하고 보다 많은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세종시민운동챌린지를 마련했다.

세종시민운동챌린지는 SNS를 통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하며, 세종시민 누구나 행사 기간 내 SNS에 개인의 운동 사진이나 영상에 #세종시민운동 챌린지 등 지정 해시태그를 첨부·게시하면 된다.

정태봉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은 "지난해 시민체육이 취소돼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웠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일상을 회

복해 예전처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체육회는 챌린지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풍성한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홈트레이닝에 유용한 태블릿 PC, 에어팟, 온누리상품권 등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시상은 오는 16일 발표한다.

또한, 공모전에 참여한 시민 50명을 별도로 추첨해 기프트콘도 증정한다.

이준희 시장은 "우리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개정 처리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제10회 세종시민체육대회가 세종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전세계대학생 올림픽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회가 유치되는 날까지 세종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올 여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보령머드축제의 5가지 매력

오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머드의 향연에 흠뻑 빠져보자

보령시는 오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제24회 온앤오프 보령머드축제를 재미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시에서 준비한 보령머드축제의 5가지 매력에 빠져보자.

온라인을 통한 양방향 체험 콘텐츠 '집콕머드체험&머드라이브 인더월드'로 집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무대 행사로 현장감을 느끼고, 체험키트를 통해 머드를 직접 몸에 바르고 즐길 수 있다.

머드라이브 인 더 월드는 머드축제의 탄생 스토리를 담은 인트로 영상을 시작으로 머드를 몸에 바른 독특크루의 머드 퍼포먼스 몸짓과 한류 가수 '위아이', '블랙스완', '소찬휘'의 축하 공연도 펼쳐진다.

이와 함께 보령머드파우더, 머드클레이팩, 쪼물라비누4종(컬러), 촉감놀이메트 등으로 구성된 집콕머드체험키트를 사전 구매하여 집에서 머드를 즐길 수 있다.

온라인 라이브는 오는 24일(토) 오후 2시부터 접속이 가능해 4시에 공연이 시작되며, 화상 참가자 및 일반 라이브 참가자 신청은 보령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다만 양방향 스트리밍시스템을 활용한 방식으로 화상 참여는 500명에 한해 청서 작성을 통해 접속 링크를 사전에 문자로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에서

는 라이브 화상참가자 홍보 지원을 진행중이며, 베트남지사에서는 체험키트 150개를 구매하고 라이브에 참여할 계획이다.

머드뿐만 아니라 보령의 맛과 섬의 풍경도 23일부터 유튜브 '머드TV'를 통해 집에서 만날 수 있다. '테이스트 오브 보령'으로 매콤 감오징어볶음·수비드 돼지뒤통다리살 스테이크 등 보령의 싱싱한 농축수산물물을 활용한 쿠킹쇼를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요리에 활용된 조리용 밀키트를 500개 한정 놀랄만한 최저가로 '공공의 주방'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보령의 아름다운 섬 삼시도·장고도의 구석구석을 활용한 '드라이빙 보령 아일랜드'로 마치 섬에 도착해 직접 여행하는 것처럼 떠오르는 해로 물든 바다, 녹음이 우거진 돌레길, 반짝이는 별과 달을 보며 낭만을 느껴보자.

무더운 여름! 휴가를 떠나고 싶은 욕구! 그러나 힘든 상황에 아쉬운 이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다. 머드축제기간 유튜브 '머드TV'에서 캠프 할인코드가 쏟아진다. 화면 속 머드마크릿코드가 뜨면 코드를 활용해서 머드화장품, 테이스트 오브 보령을 즐길 수 있는 밀키트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머드 육선 '경매의 달인'도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경매 상품은 보령베이스 숙박 및 골프장 이용권, 축협 한우2+등심, 키조개관자, 자연산대하, 비체펠



리스 숙박권 등으로 오픈시간 및 접속방법은 보령축제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예고된 정확한 시간에 클릭하여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특별한 참가자 인플루언서 '헤이진'과 '아영향'도 함께한다. 아이들에게 유명한 헤이진과 함께 사전 구매한 체험키트로 머드를 바르고 놀며 집콕 머드체험을 즐길 수 있다.

활동적인 콘텐츠를 원한다면 아영향과 함께하자. 머드를 활용하여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커플 및 패밀리 요가 등을 배우며 머드도 즐기고 요가도 하고 일석이조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김원호/기자

모든 영상은 23일 헤이진과 아영향 각각의 유튜브채널에 업로드되어 시청할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만으로 아쉬움을 느낀다면, 대전해수욕장 머드광장을 방문해 머드 원액이 자동으로 도포되는 1인 머드 자동체험시설인 '머드스프레이 샤워부스'와 해변에 누워 셀프로 머드팩을 할 수 있는 '머드비치케어'로 안전하게 머드를 체험할 수 있다.

대전해수욕장 상공에서는 주말인 24일 오후 4시와 25일 오전 11시에 각각 '공공 블랙이글스 에어쇼'도 펼쳐진다.

최만식/기자

옥천군, 다양한 체육시설 기반 확충으로 스포츠 복지 실현

옥천군이 나이와 세대를 아우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스포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군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스포츠 복지 실현에 앞장서 모든 주민이 제약 없이 활발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시설을 건립 중에 있다. 현재 옥천읍 문정리 일원에 공설운동장, 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주력하고 있다.

나이가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동호인들의 요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해 추가적으로 체육시설을 건립 중이다. 오는 2023년에 옥천향수공원 일원에 볼링장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갖춘 다목적체육센터(140억)가 준공 예정이며,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등을 갖춘 다목적구장도 옥천읍 서대리에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옥천읍 서부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문화체육센터(158억 원)가 2022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10억 원을 들여

옥천읍 삼양리에 수영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만다비체육관을 2022년에 준공 예정이다.

면 지역인 군서면과 청산면에도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하여 읍·면 균형발전과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군서 국민체육센터(42억 원)가 지난 7월 1일 기공식을 갖고 2022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성·청산 생활SOC 사업(80억 원)은 공모가 진행 중이다.

또한 군은 매년 소프트테니스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평균 3개 대회를 유치하

면서 소프트테니스 메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좋고, 선수들이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돌구장도 갖추고 있어 대회 개최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김재중 옥천군수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해 체육복지 향상을 끌어 올리겠다"며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블로그 소셜 아이어워드 2021 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의 공식 블로그 운영과 품질이 전국 지방자치기관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구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한국인터넷전문가 협회가 주최한 소셜 아이어워드(i-AWARD) 2021에서 지방자치단체 블로그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소셜 아이어워드'는 매년 분야별 우수 SNS 미디어 플랫폼을 선정·시상하는 국내 최대 권위의 어워드로, 대전 서구는 이번 수상을 통해 블로그 운영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다.

특히, 대전 서구는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지자체 블로그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또 5개 평가 항목(디자인·브랜드·콘텐츠·마케팅·서비스)

모두 지자체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된다.

한편, 대전 서구 블로그는 2012년 개설된 이래,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기획력과 체계적인 기자단 운영으로 기초자치단체 블로그로는 이례적으로 일 평균 6,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누적 방문자 800만 명을 돌파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뉴미디어 홍보시대를 맞아 서구 블로그가 대외 평가에서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SNS 매체별 맞춤형 운영과 전략적인 뉴미디어 홍보를 통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공주시, '도시재생사업' 성공 모델 벤치마킹 잇따라

공주시가 전국적인 도시재생 선진 사례지로 손꼽히면서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타 지역 기관·단체 등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공주시 송정동현장지원센터 주민 등 13개 기관·단체에서 약 110여 명이 공주시 도시재생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총 28개 팀 548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주요 답사 장소는 공주하숙마을, 나태주꽃밭문화관, 추억의 하숙촌길, 제민천 등으로 공주시의 도시재생 사업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의 수부도시였던 공주시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근대건축물, 인적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정체성을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제민천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력거점 조성, 7~80년대 하숙문화 주제의 공주하숙마을, 유관순 열사·나태주 시인 등 인물 스토리텔링이 있는 테마가로 골목길 조성사업 등이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주시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국토부장관상, 도시재생정책 국토부장관상, 아시아 도시재생 대상 및 2020

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수상을 통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윤석봉 도시정책과장은 "주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노력해 온 결과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며 "공주시 원도심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견학을 원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현장 투어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호/기자



속초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선제적 대응

수도권 및 휴가철 확산우려 속 전담관리반 확대 운영

속초시가 코로나 19 4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학 조사 등 방역 중요 업무 인력을 확대 운영한다.

델타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인한 수도권 중심의 4차 대유행은 지난 3차례 대유행과 비교하여 확산범위 및 감염속도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속초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수도권 관광객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지역 내 감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 및 자가격리 대응 등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전담반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노동동 주민센터 2층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코로나 확산 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다.

1단계(1일 5명 이내 발생)에는 보건소 자체 인력으로 대응하며, 2단계(1일 6 ~ 10명 발생)에는 15명 내외의 인력을 보강하고, 3단계(1일 10명 이상 발생)에는 3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 기존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에 더해 최대 40여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확진자 접촉자 이동동선



등 심층조사, 자가격리자 분류·지정, 자가격리 통지, 물품전달,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업무협력 등 대규모 확진자 발생 시 보건소 방역업무를 지원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속초시는 7. 18.(일) 17시 대회의실에서 김철수 속초시장 주재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긴급 방침 발표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방역 지침과 사업체별 사전 홍보 및 단속계획 등 코로나 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을 하였다.

최재은/기자

하동 하울림, 전국국악경연 두 대회 연이어 대상

천안시, '행정혁신대상 수상' 쾌거

울산 전국국악경연·서산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 품물 부문 각각 단체 대상 수상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혁신적인 행정운영으로 높은 평가 받아

해마다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수많은 수상 실적을 보이는 하동청소년예술단 하울림(단장 여두화)이 이달 들어 울산과 충남 서산에서 열린 국악경연대회에서도 연이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울림은 지난 주말 충남 서산 변화로소극장에서 열린 제23회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에서 학생부 단체 품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해 충남교육감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수상해 울산광역시상과 상금 70만원을 받았다.

(사)한국국악협회 울산광역시지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학생부, 초등부, 일반부, 신인부 등으로 나뉘어 비대면 예선과 대면 본선을 통해 우열을 가렸다.

하울림은 앞서 지난해에도 전국의 각종 국악경연에 참가해 개인·단체

부문에서 대상 15회, 금상 10회, 은상 8회 등 총 33회의 수상실적을 보이는 등 해마다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상을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다.

서산시와 (사)한국농악보존협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농악보존협회 서산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학생부, 일반부, 명인부로 나뉘어 지난 3일 예선 영상심사에 이어 이날 본선 심사로 진행됐다.

하울림은 앞서 지난 3·4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24회 울산광역시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도 학생부 품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해 울산광역시상과 상금 70만원을 받았다.

(사)한국국악협회 울산광역시지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학생부, 초등부, 일반부, 신인부 등으로 나뉘어 비대면 예선과 대면 본선을 통해 우열을 가렸다.

이처럼 하울림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국악경연대회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는 것은 학생들의 피나는 노력에다 스승들의 열정적인 지도, 하울림 지도부의 지원과 행정의 적극적

인 관심 등이 어우러져서다.

하울림은 경연에 대비해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연습하는 예술학교 등 또래 학생들과 달리 학교 수업을 하면서 방과후, 주말, 방학 등을 이용해 집중적인 연습을 하면서 꾸준히 실력을 쌓고 있다.

여기다 2015년부터 방학기간 '행과리의 살아있는 전설' 상공운 김복만 선생이 직접 하동을 찾아 학생들과 합숙을 하며 사물놀이의 비법을 전수하면서 학생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됐다.

그리고 여두화 단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헌신적인 지원과 더불어 하울림에 대한 운상기 군수의 끝없는 사랑과 관심도 학생들의 실력을 드높이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여두화 단장은 "주변의 성원과 함께 전통놀이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더해져 해마다 많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소년품물단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행정혁신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지역발전 및 행정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성과창출 유도 및 자치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상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지방정부 평가제도 중 가장 권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직접 청취·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열린 시장실'도 운영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총 197명이 참여한 58건의 민원을 다루며 시민 고충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갈등과 위기상황에서도 시민과 협력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기지를 발휘했다.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과 관련,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갈등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고, 주민투표를 실시해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 전형을 보였다.

천안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민과 적극 소통하고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협력하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는 등 혁신적인 행정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협력행정'을 펼쳤다.

이밖에 견고한 코로나19 방역대응 태세 구축을 위해 시민, 행정기관, 단체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한 점도 눈에 띈다. 의사회, 소상공인, 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는 대대방안 협의 및 소통기능을 수행했다. 자생단체와 주민 등 1,050명으로 구성된 '읍·면·동 주민예찰단'은 홍보 캠페인을 펼쳐 범시민적 자율방역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시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선진사례를 남겼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과 실시간 현황 등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민들의 질문에 실시간 답하며 불안감을 해소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또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시장이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정은 시민과의 공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혁신적으로 행정운영을 했고 이와 같은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김원호기자

칠곡군,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칠곡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5천 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도,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 실적, 일자리 사업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칠곡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간부회의와 전 부서 실적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내부행정망을 이용 매 주 실적을 게시하는 등 신속집행 추진을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칠곡군은 신속집행 대상액 2천 782억 원 중 1천 807억 원을 집행해 행안부에서 제시한 목표치 61%를 4% 상회하는 65%를 기록했다.

백선기 군수는 "코로나19라는 난관과 신속집행의 추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신속집행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과 확장적 재정운용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칠곡군은 경북도 평가에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

김세기기자

은평구, 2021 양구 국토정중앙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우승

음성군,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부산시 영도구청 실업 탁구팀 창단 첫 우승!! 쾌거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은평나인티플러스 유소년 풋살팀이 '2021 양구 국토정중앙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U-8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은평나인티플러스 유소년 풋살팀은 은평구체육회(회장 박낙홍) 산하 은평구풋살연맹(회장 최경진) 소속이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는 한국 유소년축구 클럽연맹이 주최하고, 양구군청과 양구군체육회가 주관하였다. 총 8개 팀이 2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로 진행되었다. 은평나인티플러스는 8세이하 유소년 부문(U-8)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였다.

은평나인티플러스는 최우수지도자상(박영재감독), 최우수선수상(손강후선수), 최우수 골키퍼상(조이안

선수)을 동시에 수상하는 기쁨을 맛봤다.

최경진 은평구 풋살연맹 대표는 "앞으로도 유소년 아이들이 즐겁게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힘든 상황 가운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김미경 은평구청장님과 박낙홍 은평구체육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충북 음성군은 2020년 하반기 명예 퇴직 공무원과 2021년 상반기 정년 퇴직 공무원 등 9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장을 전수했다.

15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수여식에서는 안현기 전 군청발전과장, 박대규 전 음성읍장, 이은숙 전 건강증진과장, 정영훈 전 평생학습과장, 전만동 전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녹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또 안순덕 전 모자보건팀장과 유주열 전 대소면 지방안전주사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최광식 전 회계과 주무관에게 근정포장이, 한계숙 전 맹동면 팀장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평생을 공직에 헌신한 퇴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음성군청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2021 전국추계 한국실업탁구연맹회장기 대회, 전국대회 제패 쾌거



부산시 영도구 실업 탁구팀은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개최하는 '2021 전국추계 한국실업탁구연맹회장기 대회'에 참가하여 창단 이래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취재단탁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실업탁구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산하 시·군청 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무대로 관공서 탁구단 활성화를 위해 매년 2회(춘계/추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대회 중 하나다.

부산시 영도구 실업 탁구팀은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개최하는 '2021 전국추계 한국실업탁구연맹회장기 대회'에 참가하여 창단 이래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취재단탁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실업탁구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산하 시·군청 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무대로 관공서 탁구단 활성화를 위해 매년 2회(춘계/추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대회 중 하나다.

실업 15개팀 150여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영도구청 실업 탁구팀이 강력한 우승후보인 서울시청을 이기고 결승전에서 인천시청 공단을 5전 3선승제에서 3승 1패로 승리를 거뒀다.

강우용 감독은 "올 시즌 부쩍 강한 전력을 구축하고 선수들의 역량을 충

분히 발휘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이번 경기는 시·군청부를 지배해오던 최강팀과의 대결전을 이겨낸 결과여서 더 의미있었다. 앞으로 구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김철호 영도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힘든 훈련을 소화해내고 젊은 유망주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탁구계의 돌풍을 일으킨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선수들이 에너지를 잃지 않고 역량을 끌어낼 수 있도록 영도구가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도구에는 지난해 건립된 전국 유일의 탁구 전용 훈련장인 부산탁구체육관을 통해 '탁구 도시 부산'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남영기기자

금천신협, 지역 결식아동을 위한 따뜻한 손길



금천구는 지난 7월 14일 금천신협동조합에서 지역 내 한부모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100만 원 상당 외식쿠폰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이날 오전 10시 독산3동 주민센터에서 독산3동장, 금천신협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달된 외식쿠폰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과 점체된 소비로 고통을 겪는

식당 자영업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독산3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주민 20가구에 5만 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독산3동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금천신협과 긴밀하게 협력해 복지취약계층과 경영난에 놓인 소상공인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개관23년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첫걸음을 뗀다

부산시는 개관한 지 23년이 지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21세기 변화된 트렌드에 맞춘 전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립미술관은 2018년 10월 미술관 본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리모델링을 위한 문체부 타당성 사전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올해로 끝마쳤다. 리모델링 공사 규모는 본관 건물 전체 연면적의 68%인 14,720㎡이며, 총사업비는 260억 원이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 13억 원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 설계 공모를 통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3년 공사에 착공해 향후 1년간 미술관 체질 개선을 위한 대대적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스마트미술관을 추진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다"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4차 산업시대 부산형 스마트미술관을 구현해 시공을 초월하는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고, 동시대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대표미술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공사내용은 ▲전시실 향온·향습 시스템 구축 ▲3층 전시장 통합 ▲어린이미술관과 교육존 확충 ▲1층 출입구 개선 ▲서비스존(카페, 아트샵, 유희공간)의 현대화 ▲미술정보센터 및 소장품의 수장시설 확보 ▲미술관 콘텐츠 체험 기능을 강화한 디지털 러닝존 설치 및 멀티플렉스를 구축 등이다.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은 "시립미술관이 오는 2024년 국제관광도시 위상에 걸맞은 21세기형 미술관으로 탈바꿈하면, 향후 25년간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가 가능한 품격있는 기획·시설전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인 본관은 공사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2024년 재개관 시까지 운영되지 않으나, 소장품 연구 분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과 콘텐츠를 구축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메타버스(가상)공간에서 새로운 개념의 전시를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이우환 공간 및 야외 전시공간을 활용한 전시는 계속된다.

남궁영기기자

전통기와지붕과금강산만물상... 민족의魂을 담아 그려내는 백파의 화풍



아름다운 금강산 경치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그만 용궁으로 돌아갈 때를 놓친 거북이도 반한 금강산 만물상과 전통 한옥 기와 처마 곡선의 자세를 그림으로 그려낸 동양화가의 예술의 극치(極致)를 볼 수 있다.

백파 김철완 화백은 수묵 담채를 기초로 전통 산수와 고궁, 사찰, 전통가옥 등 기와집을 그려내는 동양화가다. 한국미술협회 서예 문인화, 한국화 초대 작가이기도 한 그는 화선지가 아닌 천에 흙과 먹으로(광묵) 금강산의 아름다움과 기와지붕의 고풍(古風)을 화폭으로 담아내고 있다.

화백은 20대에 전남 미술 전람회를 관전하며 동양화에 매력에 빠졌다. 어릴 적부터 붓을 잡아 서예에 숙달된 화백은 서예를 기반으로 산수화를 그렸는데, 우연한 기회에 전국의 수많은 고궁과 사찰, 하회마을, 전주 한옥마을 등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통 기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기와를 소재로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혼(魂)을 담아내는 그림을 그려내게 된다.

그림의 독창성을 모색하던 화백은 한지가 아닌 광묵에 흙을 발라 이교를 접착해 수차례 바탕 작업을 거친

후, 금강산을 소재로 웅장함과 기상을 작품에 담았다. 화백은 섬세한 세필이나 발묵, 갈필, 농담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그림을 그려내는데, 이는 끊임없는 그림에 대한 열정의 결과다. 화백은 개인전에서 한지 위에 기와지붕을 공필법(工筆法)으로 묘사한 인사동 고가(200호)와 광복 위에 금강산 풍경을 담은 그림을 선보였다.

금강산 풍경을 담은 그림은 인도 첸나이 비엔날레에서 최고의 작품으

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이 작품은 인도 TVS모터(인도 3대 거장)베누스라리바산 회장께서 소장품으로 간직할 만큼 인도 사람들이 극찬한 작품으로 화백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으로 마음에 새기고 있다.

송수천년(松壽千年) 푸른 정성을 가지고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작품이 살아 숨쉬기를 바라는 예술의 혼이 깃든 화백 백파 선생에게서 송고한 예술의 혼(魂)을 느낄 수 있었다.

교수/김원호



제 39 회 대한민국연극제 in 안동·예천 개막

7. 17일 ~ 8. 8일까지 도청(동락관), 안동시, 예천군에서 열려



경상북도와 안동시, 예천군이 주최하고 (사)한국연극협회 경상북도지회가 주관하는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in 안동·예천'이 17일 안동탈춤공연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연극 공연 그리고 연극인, 안동시민, 예천

군민, 주요 내빈이 성공적인 연극제를 위한 선언문을 함께 낭독 후 갖을 하늘위로 던지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올해 대한민국연극제는 '연극, 오 마이 갓'이란 주제로 8월 8일까지 23일간 경북도청(동락관), 안동시, 예천군에서 진행되며, 주제는 연극

의 경이로움이자 상상 이상의 놀라움을 담은 감탄사와 안동·예천의 양반 정신, 유교 문화를 '갓'이라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담았다.

이번 연극제는 본선 공연과 넷트워킹 페스티벌 및 오 마이 갓 프린지 페스티벌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선 공연은 전국광역시·도를 대표하는 16개 연극팀이 7. 18일 ~ 8. 6일까지 경북도청(동락관), 안동문화예술의전당(웅부홀)에서 격일로 1일 2회(16시, 19시 30분) 경연을 펼친다.

네트워킹 페스티벌은 신진 연극인의 참여 기회를 넓혀주고자 참가 단체의 연출가 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여 전국에 총 25개 단체가 응모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8개 팀이 선정되어 7. 19일 ~ 8. 4일까지 예천군문화회관에서 차세대 젊은 연극인들의 작품이 공연된다.

오 마이 갓 프린지 페스티벌은 전

국에서 참여한 43개 팀과 안동과 예천의 30개 예술단체가 함께 호흡을 맞춰 연극, 뮤지컬, 클래식, 마술, 마임, 서커스, 댄스, 악기연주 등을 7. 18일 ~ 8. 7일까지 도청 중심상가, 안동 개뿔나루, 예천 도효자마당에서 1일 4~5회 야외공연으로 관객들과 거리를 좁혀 진행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연극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경북의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극인 간 네트워킹 구축으로 경북도내 예술인들의 전국 무대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도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연극작품 관람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 가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강원 고성군, 백신접종 문화적 인센티브 "DMZ POP 백신 맞GO 즐기GO 콘서트" 개최

강원 고성군은 코로나19 백신접종 동참분위기 확산, 지역경기 활력 제고 및 평화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등을 위해 "DMZ POP 백신 맞GO 즐기GO 콘서트"를 오는 7월 24일 오후 7시에 고성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차 이상 백신접종자(1차접종자 포함)를 대상으로 개최되며 백신접종 주 연령대가 어르신인 것을 고려하여 트로트 중심의 라인업을 구성해 송가인, 홍자, 박혜신, 진성, 박군, 조명섭 등이 출연한다.

공연 티켓은 YES24에서 무료 사전예매를 진행 중이며, 인터넷 취약계층 및 사전예매를 못한 주민을 위해 티켓 200매를 별도로 준비해 공연 당일 14시부터 선착순으로 현장 예매가 가능하다.

좌석은 7. 19 ~ 7. 24까지 고성군에서 소비한 영수증 금액에 따라 구역별 지정좌석제로 배분할 계획이다.

관객들은 공연 당일 신분증, 예약내역, 백신접종확인증, 고성군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발열체크, 전신소독 및 안심콜 등을 통한 출입기록 후 입장이 가능하다. 실내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취식 및 함성은 금지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좌석 한칸 띄우기, 체육관 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이행과 소방차, 구급차 및 경찰인력을 배치하는 등 방역과 안전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이등원기자

금정구, 온천천에서 '춤추는 금정' 즐겨요

금정문화재단 '문화가있는날' 장전역 인근서 개최



(재)금정문화재단은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부산도시철도 장전역 1번 출구 및 온천천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금정예술마실, 문화로 논 데이(Day)'를 연다.

이번 행사는 '춤추는 금정'을 부제로 관내 다양한 춤 장르의 생활문화동호회 공연으로 구성된다. 지역 생활예술 공연 단체인 어반스윙(스윙댄스), 키나올레 하와이문화예술단(홀라댄스), 편리인댄스(라인댄스), 위드벨리댄스(벨리댄스), 댄스포레스트(K-POP), 댄스업아카데미(스트릿댄스) 등 총 13팀의 동호회가 무대에 오른다.

아울러 지역의 생활문화작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프리마켓과 체험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되며 행사 관람객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조절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금정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금정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올해로 4년 연속 선정됐으며 이번 행사를 포함해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남궁영기기자

대전시 시립미술관, '인생을 바꾼 단 하나의 그림' 온라인 강연



대전시립미술관은 '인생을 바꾼 단 하나의 그림: 선승혜 관장의 공감미술 분석'을 매주 수요일 온라인을 진행한다. 첫 방송은 7월 21일이다.

'공감미술분석' 온라인 강연은 코로나 미술 작품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민전화형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를 다함께 이겨내는 어려운 시기에 예술이 위안이 되고, 빛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이번 온라인 강연은 2021년 대전시립미술관이 정신의학과 예술로 인간성의 회복을 목표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공감미술분

석은 정신분석을 응용한 미술감상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온라인 강연은 누구나 대전시립미술관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강의를 준비한 대전시립미술관 선승혜 관장은 "공감은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라고 말하며, "이번 온라인 강연은 미술을 하나씩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단 하나의 미술작품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공감미술과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함안문화예술회관, 'LED 비바츠 태권발레' 공연

오는 24일 오후 4시 'LED 비바츠 태권발레' 공연이 함안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른다.

'LED 비바츠 태권발레'는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와 서양의 대표적인 무용장르 발레 그리고 디지털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아트테크가 접목된 새로운 콘셉트의 아트포츠 댄스 뮤지컬이다.

세계적인 고품인형 테디베어와 정통 발레, 그리고 LED 기술이 합쳐진 공연도·발레·IT 융합프로그램이다.

공캐릭터들이 태권도와 발레를 배워 환경을 파괴하는 악당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로 온 가족이 재미있게

웃고 함께 춤추며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려한 미디어 영상과 LED 발레의 환상적인 이미지로 펼쳐진 무대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방방곡곡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사업으로 객석 30%를 소외계층 우선 초청으로 채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5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입장료는 전석 2만 원이다. 함안문화예술회관 문화사랑 유료회원은 30% 할인된다.

최광용기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포천 등 6개 시군 대상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2021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

대상 6개 시군(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신청기간

- 연천군 2021. 7. 20 ~ 8. 31
- 포천시 2021. 7. 20 ~ 8. 31
- 여주시 2021. 7. 20 ~ 9. 6
- 양평군 2021. 7. 28 ~ 8. 31
- 안성시 2021. 8. 2 ~ 9. 3
- 이천시 2021. 8. 2 ~ 9. 6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경기도는 오는 20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9월까지 신청절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정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 농민의 권리 강화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6개 시군이다. 신청기간은 시군별로 조금씩 다르나 9월 초까지는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 포천(7.20~8.31), 연천(7.20~8.31), 여주(7.20~9.6), 양평(7.28~8.31), 안성(8.2~9.3), 이천(8.2~9.6)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충남도, 특구특화단지기업 정책금융지원한다



충남도가 강소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소재·부품·장비 단지 내 입주기업 및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도는 18일 천안시, 아산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서면으로 '충청남도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특화단지 기업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구·특화단지 관련 기업이 사업 초창기 시중은행의 문턱이 높아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강소특구와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8월 과기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각각 차세대 자동차 부품 분야, 수소 규제 완화를 통한 연구를 특화 분야로 지정받았다.

소부장 단지는 올해 2월 산업부로부터 디스플레이 사업 지원을 특화 분야로 지정받았다.

이번 협약으로 도와 천안·아산시는 각 특구·특화단지에 맞는 특화산업 관련 기업을 발굴하고 지자체 사업 및 신규 사업 추진 시 연계 방안을 마련, 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자체 지원 사업들과 연계해 협력 지원한다.

정책금융은 특구·특화단지 내 관련 기업에 2023년까지 3년간 450억 원(연간 150억 원)의 별도 예산을 확

보해 저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지원 사업으로는 △창업자금 △신성장자금 △투자자복합금융 △사업전환자금을 운영하며, 시설자금 최대 70억 원,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등을 대출금리 1.85~2.65% 범위 내 지원한다.

아울러 특구·특화단지 관련 기업이 중진공 자체 사업인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 바우처 △청년사관학교 △수출 바우처 등을 신청하면 우대 가산점을 부여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초창기 기업이 겪는 연구개발(R&D) 분야의 기술 지원, 실험 인증, 보유 장비 대여 등 연구원이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기업의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한국자동차연구원, 기업은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업 지원 방법 및 지원액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도와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초창기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특구·특화단지 내 지역 특화산업 관련 기업이 충남의 미래를 이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경남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350억 원 지원

경상남도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35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기존자금 300억 원(사각지대 50, 사업장 구입 250)도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7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차차액을 보전한다.

단,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2년간 2.5%의 이차차액을 보전해준다. 최종 산출 보증료 중 1년간

0.3%p를 지원한다.

3분기 정책자금 중 20억 원은 청년사업가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 업력 84개월 이하인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하며, 1년간 보증료 0.5%p를 지원한다.

정책자금 중 50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할당하며, 1년간 보증료 0.2%p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자금 중 한도가 소진되지 않은 자금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사각지대 특례자금은 잔여한도인 50억 원이고, 융자금액은 업체당 1,000만 원 한도로, 1년간 연 1.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업 제한을 감내하는

집합금지(유형업종 포함)·영업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신용평점 595점(구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이며, 2021년에 경상남도 코로나 특별자금의 수혜를 이미 받은 업체는 제외한다.

자금상당 예약은 19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전화접수를 통한 상담예약도 가능하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은 사업의 확장 또는 이전 등을 위해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되는 자금으로 잔여한도는 250억

원이다. 업체당 한도는 10억 원이며, 도는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추가 지원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업력 36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제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 신청은 경남은행 전 지점, 농협은행 도내 전 지점에서 할 수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 소상공인이 일시적 위동성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광용기자

인천시, 기업 RnD 지원으로 인천 산단 대개조에 한걸음 더



은 과제에 지원돼 총 50억 원 가량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기업의 제품화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제품 상용화 R&D과제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바우처 R&D, 산업단지 내 동종업종 중소기업간의 공동 기술 개발 예로서항을 발굴·해소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공동활용 R&D, 스마트 산업단지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종업종 간 융·복합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융·복합 R&D가 있다.

이 중 공동활용 R&D에서는 주관 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와 참여기관인 지역기업들의 공동 연구로 자동차부품, 2차 전지배터리, 가전, 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플라스틱 사출 공정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출제조공정 스마트화와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바우처 및 융합 R&D에서도 각각 선정된 과제에 참여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 사업은 기계, 전기전자, 바이오 분야에서의 기업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R&D 과제를 운영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혁신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소비 트렌드 맞춰 새단장



경상북도는 19일 도내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사이소' 홈페이지 새 단장을 마쳤다.

이번 '사이소' 홈페이지 개편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 눈높이에서 보다 편리한 인터넷 쇼핑 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각종 이벤트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창을 나란히 배치하고, 실시간 판매 순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며, 계절 농산물이나 기획 상품, 추천 상품 등도 개편 이전보다 소비자가 손쉽게 파악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꾸몄다.

경북도는 이번 사이소 새단장을 기념해 7월 31일까지 사이소를 방

문해 퀴즈의 정답을 맞춘 선착순 1,000명에는 사이소 쿠폰을 제공하며, 새로운 사이소를 경험하고 이를 특정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공유한 고객 100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그 동안 사이소는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의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후 소포몰과 연계한 판로 확장과 다양한 판촉 행사를 추진한 결과, 금년 7월 15일 현재 매출액은 100억원, 입점농가는 1,200호, 상품 수는 8천 여개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북도는 개편에 이어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이벤트 다양화, 사이소 배가운 동 전거, 제후 소포몰을 확장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중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고의 상품이 언제나 가장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만이 경쟁에 밀리지 않는다"며 "단순한 홈페이지 개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할 앞서 파악해 소비자들이 '사이소'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대표 인터넷 장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수원시, '배달특급' 활성화사업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수원시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와 손을 잡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수원시와 경기도주식회사는 19일 시청 상홀실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와 배달특급에 가맹한 영세 소상공인 업체의 음식 사진 촬영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수원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음식사진 촬영 등 배달특급 활성화와 사업 업무를 대행한다. 사업은 12월까지 진행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외식업체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배달 플랫폼이다. 광고비가 없고, 중개수수료가 기존 배달앱보다 저렴해 가맹점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1월부터 '배달특급' 가맹점을 모집했고, 4월 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7월 11일 기준으로 4522개 업소가 가맹 신청을 했다. 현재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수원시민은 3만 3000여 명이다.

배달특급 중개수수료는 1%(2022년부터 2%)로 배달앱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원페이(지역화폐) 가맹점에서는 수원페이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다.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5% 할인받을 수 있는데, 수원페이 충전 인센티브가 10%인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15%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지역화폐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는 배달앱은 '배달특급'이 유일하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사승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철재 소상공인연합회 수원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적 모임이 제한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배달특급 활성화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 배달특급을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정근기자

'라디오스타' 오종혁-박군, 9년 전 軍에서 만나 '강철부대'서 재회! 첫 만남 스토리 공개!

해병대수색대 출신 오종혁과 특전사 출신 박군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군대에서 처음 만나 9년 후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에서 재회한 스토리를 공개한다.

또 오종혁은 'FM 스타일' 박군이 이끄는 특전사 팀 대원들이 불쌍했다며 '강철부대'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를 폭로해 궁금증을 유발한다.

오는 21일 밤 10시 2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 / 연출 강성아)는 임채무, 이준혁, 오종혁, 박군이 출연하는 '강철 사나이' 특집으로 꾸며진다.

'강철 사나이' 특집에는 해병대 출신 임채무, 특전사 출신 이준혁, 해병대수색대 출신 오종혁, 15년 동안 특전사로 복무한 박군까지. 육체부터 정신까지 군기 충만한 4인이 모여 세대대를 넘나드는 군대 설을 펼친다. 이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은근(?)히 견제하며 과열되는 군부심 토크 열전을 펼쳐 대포소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전사에서 '트로트계 셋별'로 대변신에 성공한 박군은 '라디오스타'에 처음 출연해 리얼 군대 스토리를



들려준다. 직업 군인을 선택했던 배경부터 15년 몸 담은 군대를 떠난 이유까지 아낌없이 고백한다. 무엇보다 박군은 '강철부대'에 출연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어서 호기심을 자극한다.

'강철부대'에서 각각 해병대수색대 팀장, 특전사 팀장으로 활약한 오종혁과 박군은 9년 전 군대에서 만나

'강철부대'에서 재회했다고. 오종혁은 "한 행사에서 박군을 만났다. 당시 특전사 대표였다"고 회상했고, 박군은 "오종혁이 전술적인 지식이 엄청났다"며 9년 전 첫 만남 당시를 떠올려 궁금증을 유발한다.

또 오종혁은 '강철부대'에서 박군과 재회한 뒤, 'FM' 그 자체인 박군의 모습에 놀랐던 사연을 들려준다.

'미치지 않고서야' 정재영 VS 이상엽 불꽃 대치!

테스트 조작 사실 밝힐까

'미치지 않고서야' 정재영, 문소리, 이상엽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MBC 수목 미니시리즈 '미치지 않고서야'(극본 정도윤, 연출 최정인, 제작 아이윌미디어) 측은 9회를 앞둔 20일, 식기 세척기 테스트 조작 사실을 알게 된 최반석(정재영 분)과 한세권(이상엽 분)의 불꽃 대치를 포착했다. 여기에 분노하는 당사자(문소리 분)와 냉랭한 서나리(김가은 분)의 눈빛은 일과 사랑 모두 빨간불이 켜진 한세권의 역대급 위기를 예고하며 궁금증을 고조시킨다.

지난 방송에서 창인 사업부는 식기 세척기와 관련된 비리로 떠들썩했다. 메인집 교체를 주장한 최반석은 고정식(김중기 분) 센터장과 특정업체의 유착 관계를 의심했다. 이에 사내 감사팀이 출동한 상황. 과거 식기 세척기 개발 당시 메인집 테스트 결과를 조작했던 한세권은 초조해졌고, 당사자(문소리 분)를 찾아 사실을 고백하며 도움을 청했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최반석, 한세권의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다. 한세권을 향해 매섭게 몰아붙이는 최반석과 그를 바라보는 한세권의 세상 못마땅하고 억울한 표정이 궁금증을 높인다. 앞선 9회 예고편에서 최반석은 뻔뻔한 한세권의 태도에 분사 진단팀에 정식으로 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비랑 끝 위기 속 생존본능을 발동시킨 한세권의 모습도 흥미롭다. 당사자를 찾아가 비굴 모드를 발동시킨 한세권과 불꽃 썰림을 날리는 당사자의 대비는 웃음을 유발한다. 위기는 그뿐만 아니다. 한세권과 비밀연애 중인 상품기획팀 서나리(김가은 분)의 변화도 심상치 않다. 일과 사랑 모두 위기에 빠진 한세권의 생존전략은 무엇일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내일(21일) 방송되는 9회에서는



존폐의 기로에 놓인 창인 사업부의 모습이 그려진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불량 부품' 식기 세척기는 창인 사업부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 '미치지 않고서야' 제작진은 "식기 세척기 문제 해결법을 놓고 최반석, 당사자, 한세권이 부딪힌다. 최반석, 당사자는 판도를 뒤집을 획기적인 방안을 고안해낸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 달라"라며 "한층 더 다이내믹하고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생존 전쟁의 2라운드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MBC 수목 미니시리즈 '미치지 않고서야' 9회는 내일(21일) 밤 9시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두 번째 남편' 엄현경-차서원-한기웅, 위태로운 긴장감 폭발 '포스터 2종' 공개!



MBC 새 일일드라마 '두 번째 남편'의 포스터 2종이 공개돼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한다.

오는 8월 9일(월) 저녁 7시 5분에 첫 방송하는 새 일일드라마 MBC '두 번째 남편'(극본 서현주/연출 김철봉)은 빼앗긴 자와 빼앗은 자의 피할 수 없는 대립! 처절한 복수와 응징으로 점철된 두 여자의 드라마.

'최고의 연인', '빛나는 로맨스' 등을 집필한 서현주 작가가 대본을 맡은 가운데 엄현경, 차서원, 오승아, 한기웅이 출연해 기대지수를 높이고 있다.

엄현경은 극중 문상혁(한기웅 분)과 오랜 연애 끝에 아이까지 낳았지만 그의 배신으로 살인 누명까지 쓰게 되는 '봉선화' 역을, 차서원은 흰

칠한 키에 훈훈한 외모, 성격까지 갖춘 안팎남이자 봉선화의 두 번째 남편 '윤재민' 역을 맡았다. 또한 한기웅은 출세를 위해서라면 오랜 연인과 자식까지 버리는 비정한 첫 번째 남편 '문상혁'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남편' 측이 포스터 2종을 공개해 관심을 높인다. 먼저 3인 포스터 속 엄현경은 차서원과 한기웅 사이에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고혹적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그런 그의 단단한 눈빛이 보는 이들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이와 함께 차서원은 엄현경의 곁을 지키며 고뇌에 빠진 반면, 한기웅은 무언가 계획을 꾸미는 듯한 눈빛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과 산산 조각난 배경이 긴장감을 유발한다. 깨져버린 일상 속에 사

랑과 욕망으로 얽혀갈 엄현경, 차서원, 한기웅의 격정 로맨스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그런가 하면 1인 포스터 속 엄현경은 순백의 원피스 대신 블랙 의상을 장착하고 복수심이 일렁거리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번뜩여 눈길을 떼지 못하게 한다. 특히 그의 양손에 끼워진 결혼 반지와 함께, 수갑을 연상케 하는 팔찌가 양 손목에 채워져 있어 호기심을 유발한다. 이에 출세를 위해 가족을 저버린 첫 번째 남편과, 새롭게 찾아온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 분노와 복수로 얼룩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갈 엄현경의 이야기가 담긴 '두 번째 남편'에 흥미가 더욱 고조된다.

한편, MBC 새 일일드라마 '두 번째 남편'은 8월 9일(월) 저녁 7시 5분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너는 나의 봄' 김서경, 서현진♥김동욱 뜻밖의 '사랑의 큐피드' 활약



'너는 나의 봄' 김서경이 서현진과 김동욱 사이에서 '사랑의 큐피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매력을 발산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너는 나의 봄'에서는 천승원(김서경 분)의 뜻밖의 활약으로 한층 더 가까워진 강다정(서현진 분)과 주영도(김동욱 분)의 관계가 그려졌다.

방송국에서 일하던 천승원은 주영도의 라디오를 듣다가 발뚎 일어났다. 주영도와 라디오 피디가 잘 어울린다는 소리에 심술이 난 것. 앞서

천승원은 주영도에게 라디오 출연을 제안하며 "갠(라디오 피디) 안 돼, 내가 찍었어"라며 주영도를 경계했다.

천승원은 주영도가 신청 곡을 남기고 떠난 틈을 타 라디오 부스로 잠입했다. 그는 스케치북과 매직을 들고 디제이에게 보여주며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한 장면을 재현, 깨알 웃음을 자아냈다.

천승원은 스케치북을 통해 주영도 대신 '강릉에 같이 갔던 다정한 여인에게 이 노래를 보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 주영도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암시했다. 분노한 주영도에게 천승원은 "그니까 왜 끼를 부려!"라고 불멘소리를 하기도.

메시지와 노래를 강다정도 듣게 되었고, 천승원 덕분에 강다정과 주영도는 한층 가까워졌다. 이처럼 천승원은 뜻밖의 '사랑의 큐피드'로 활약,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해내며 극에 재미를 더했다.

김서경은 말투 하나, 행동 하나도 놓치지 않는 자연스러운 연기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현실에서 진짜 있을 법한 알맹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절친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 김동욱과 티격태격 케미를 이루고 있어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가 커진다.

한편, 김서경이 출연하는 tvN '너는 나의 봄'은 매주 월, 화 밤 9시에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배우 신애라, MBN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 출연



배우이자 임양 모(母) 신애라가 MBN '써치'에 출연했다.

15일 방송된 MBN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에서는 임양된 지 9개월 만에 양부 학대로 하늘의 별이 된 일명 '민영이 사건'에 대해 다루된다.

만 2살 된 아이가 치명적인 뇌손상에 이어 사망에 이른 '양부모 학대 사건'의 전말이 공개되는 것.

이날 방송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는 신애라는 '민영이 사건'과 관련해 "너무 화나고 속상하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말문을 연다.

이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전과 안정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곳에서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지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베이비박스에서 친모의 편지와 함께 발견된 민영이는 보호시설로 연계된 후 양모 최 씨를 만

나 임양됐다. 그리고 민영이는 2021년 5월,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고 한 대형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양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 아이의 뺨과 손바닥을 몇 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상황. 이에 신애라는 "아이에게 한 것이 훈육인지 화풀이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훈육은 화가 전혀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르쳐서 습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 아이를 주눅 들게 하는 말,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 등짝을 때리는 가벼운 손찌검 등이 모두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전하며, 부모의 올바른 훈육법도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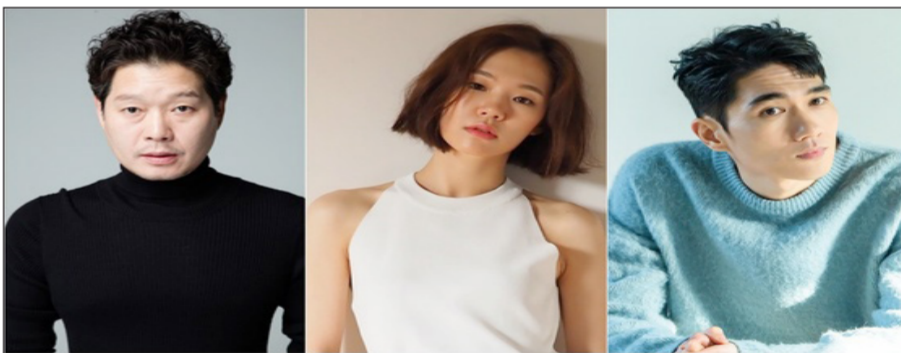
신애라는 마지막으로 이번 학대 사건과 달리 사망으로 육아 중인 많은 이들을 대신해 "저출산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아프게 크고 죽어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다."

나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아무 준비 없이 부모가 되고 있지 않나. 솔직히 기본적인 육아 책 한 번 안 읽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도 좋을 것 같다"라고 당부의 한마디를 전한다. 차인표-신애라 부부는 지난 2005년과 2008년에 두 딸을 공개 임양한 바 있다.

현유주/기자

'홈타운' 9월 첫 방송 확정! 유재명X한예리X임태구 '미스터리 스릴러' 온다!



tvN '홈타운'이 오는 9월 첫 방송을 확정해 몰입도 최강 '미스터리 스릴러'의 탄생을 예고한다.

tvN 새 드라마 '홈타운'(연출 박현석/극본 주진/제작 스튜디오 드래곤,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은 1999년 사주시, 연이은 살인 사건을 쫓는 형사(유재명 분)와 납치된 조카를 찾아 헤매는 여자(한예리 분)가 사상 최악의 테러범(임태구 분)에 맞서 비밀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스릴러.

이 가운데 '홈타운' 측은 "'홈타운'이 tvN을 통해 오는 9월 첫 방송된다"고 전했다. 특히 '비밀의 숲'을 연출한 박현석 감독이 매가폰을 잡고, 믿고 보는 충무로 연기와 배우 유재명, 한예리, 임태구가 주연 3인으로 출연을 확정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유재명은 참혹한 테러범죄로 아내를 잃은 강력반 형사 '최형인'을 연기한다. 최형인은 아내를 죽게 내버려뒀다는 죄책감에 10여년을 유령처럼 살다 한 살인사건을 담당하게 되고, 해당 사건이 10년전 테러범과 그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품게 되는 인물로 유재명의 묵직한 존재감이 극의 무게감을 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예리는 테러범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견디며 살아가는 '조정현' 역을 맡았다. 오빠가 저지른 죄값으로 무너진 삶을 아이 러니하게 오빠의 딸이자 자신의 조카인 '조재영'을 통해 재건한 조정현

은 목숨처럼 아끼는 조카가 실종되며 또 다시 비극과 맞서게 되는 인물. 영화 '미나리'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한예리가 선보일 연기발에 기대가 고조된다.

극중 유재명, 한예리와 대적점에서는 임태구는 사상 최악의 무차별 테러사건을 벌인 미스터리 무기징역 수 '조경호'로 분한다. 1989년, 일본 유학에서 돌아오자마자 고향의 기자역에 신경가스를 살포하여 끔찍한 무차별 테러를 저지른 후 보란 듯이 자수를 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는 등 수순이 가득한 인물이다. 베일에 싸인 '조경호' 캐릭터를 임태구가 어떻게 그려낼지 관심을 일으킨다.

또한, '비밀의 숲'을 통해 탄탄한 연출력을 인정 받은 박현석 감독이 극의 진행될수록 점차 확장되는 플롯의 미스터리 스릴러 '홈타운'으로 다시 한번 밀도 높은 섬세한 연출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이에 믿고 보는 연기와 군단과 박현석 감독이 뭉쳐 일궈낸 살인사건에 대한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tvN 새 드라마 '홈타운'은 2021년 9월 첫 방송 예정이다.

전순희/기자